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23

11

유럽 박물관 기행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Gallerie dell'Accademia)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김용걸 몸짓 발레와 남명렬 품격
연극으로 함께 한 오페레타 '박쥐'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엄유민범 전국투어콘서트-부산

엄유민범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러시아 발레 전통과 마린스키의 황실 전통을 계승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
내한공연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나보세요!



- 서울** 12월 8일 (토) 15:00, 9:00 사랑의 교회 본당
- 부산** 12월 11일 (화) ~ 12월 12일 (수)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대구** 12월 13일 (목) ~ 12월 14일 (금) 19:30 대구수성아트피아 용지홀
- 안성** 12월 15일 (토) 17:00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70 대한민국 오페라
주년 기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18 부산오페라 WEEK

온누리 오페라단
THE ONNURI OPERA COMPANY

오페라 인 콘서트

NABUCCO

11. 27 Tue 7:30pm

대극장

문의 051-990-2231

입장권 R석 5만원/S석 3만원

A석 2만원

NEW ASIA
OPERA
COMPANY

오페라 전막

LA 라 트라비아타 TRAVIATA

12. 1 Sat - 12. 2 Sun 7:30pm

대극장

문의 1600-6867

입장권 VIP석 20만원/R석 15만원/S석 10만원

A석 8만원/B석 6만원/C석 4만원

SOL'OPERA

오페라 갈라콘서트

The Big Night

Grand Opera Gala Concert

11. 30 Fri 7:30pm

중극장

문의 1544-9373

입장권 R석 15만원/S석 8만원

A석 5만원/B석 3만원

장소_부산문화회관

주최 : 부산광역시 NEW ASIA OPERA COMPANY 온누리 오페라단 SOL'OPERA

주관 : 부산문화회관 NEW ASIA OPERA COMPANY 온누리 오페라단 SOL'OPERA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두 부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2018. 11. 21 (수) | 오후 8시
2018. 11. 22 (목)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극작
박정우
김정환
연출
박정우
채민수
출연
박찬영
이태경
박호천
최현정
이대희
박준성
채민수
이혜진
김예진
김은형
박문현
권상우



국악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국악인·영화배우
오정해

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고토를 위한 국악관현악 <초소의 봄>

국악관현악 <말발굽소리>

플루트와 국악관현악 <Sound of Peace>

오정해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너영나영/목포의 눈물/배 띄워라>

국악관현악 <비상>

The 66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1974
울수도
문화
공연

國香里

국향만리



객원지휘 배양현



고토 카타오카 리사



플루트 김영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예술감독 김원명

2018. 11. 23.(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악감독 | 서종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만추

제 545회 정기연주회

晚秋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8. **11. 16**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비발디 ·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中
Vivaldi · Violin Concerto "Le quattro stagioni", Op.8
가을 *L'autunno*

피아졸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中
Piazzolla · Las Cuatro Estaciones Porteñas
겨울 *Invierno Porteño*, 봄 *Primavera Porteña*, 여름 *Verano Porteño*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Rachmaninoff · Symphony No.2, Op.27
Largo - Allegro moderato, Allegro molto, Adagio, Allegro vivace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조진주 Jinjoo Cho,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진학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부산시립무용단 79회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예술감독 김용철

Artistic Director KIM, Yongchul

业镜台

A Man's Requiem

업경대

2018. 11. 21(수) - 22(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8년 11월호 통권 32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 정복업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엄유민법 전국투어콘서트-부산
-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11월 공연캘린더
- 16 BACKSTAGE OPERA**
김용걸 몸짓 발레와 남명렬 품격 연극으로 함께 한
오페레타 ‘박쥐’
- 18 MUSEUM OF EUROPE**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Gallerie dell'Accademia)
- 22 TRAVEL WITH YOU**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의령
- 29 PREVIEW**



36 ISSUE
2018 부산오페라 WEEK

38 REVIEW

40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59 NEW BOOK
새로 나온 책

60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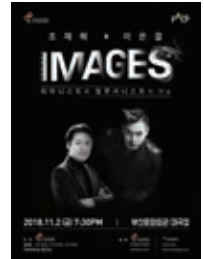
63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이달의 PICK

이제 곧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입동이 다가온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분주하게 달려왔던 2018년도 어느덧 끝을 보이기 시작하고 부산지역의 공연장 역시 한 해의 결실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찬 바람이 불기 전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오자마자 떠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풍성한 무대를 통해 달래보자.

조재혁×이은결 'IMAGES'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신비한 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만남,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IMAGE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사랑해요 당신'
11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을 소재로 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부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사랑해요 당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주현미와 오케스트라의 'Serenade'-부산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주현미와 50인조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 'Serenade'.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대에게 다가가는 순간 엄유민법 전국투어콘서트-부산

뮤지컬 '삼총사'로 호흡을 맞춘 배우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가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콘서트 '엄유민법' 부산콘서트가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엄유민법'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엄기준, 볼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카리스마 유준상, 감미로운 목소리로 뮤지컬계의 고막남친으로 등극한 배우 민영기, 저음보이스로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배우 김법래 등 네 배우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만든 이름이다. 그들의 인연은 뮤지컬 '삼총사'의 10년 전 초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인공인 달타냥과 삼총사로 놀라운만한 호흡을 선사했던 엄기준과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에게 관객들이 직접 '엄유민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자랑해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엄유민법' 이름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 2100석이 넘는 극장을 가득 채우며 다양한 볼거리와 팬 서비스, 그리고 다른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무대로 호평받았다. 일본 공연 후 한국에서도 팬들의 콘서트 요청이 쇄도하면서 2016년 6월, 한국에서의 '엄유민법' 첫 콘서트가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 후 전국 투어를 개최하

며 매년 그들만의 특별한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첫 콘서트는 티켓 오픈 첫날 예매율 47%를 기록하면서 뮤지컬이 아닌 콘서트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들은 '엄유민법'이라는 정식 그룹명으로 팬들을 위한 유준상의 자작곡 'You Are The Best' 음원과 MV도 발매하는 등 각종 공연과 페스티벌에서 한국 뮤지컬의 대표 아재돌 그룹으로 맹활약 중이다.

'엄유민법'의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는 모두 탄탄한 노래 실력과 연기, 여유 넘치는 무대매너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온 한국 뮤지컬계의 스타이다.

뮤지컬을 비롯해 연극, 영화, 드라마를 모두 소화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엄기준은 1995년 연극 '리처드 3세'를 통해 연극배우로 데뷔한 후 어떤 배역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타고난 배우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대표적인 뮤지컬 작품으로는 로빈훗, 레베카, 보니 앤 클라이드, 삼총사, 베르테르, 잭 더 리퍼, 몬테크 리스토, 그리스, 벽을 뚫는 남자, 김종욱 찾기, 헤드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이 있으며, 2006년부터는 단막극을 시작으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2011 SBS 연기대상 남자우수상, 2008 KBS 연기대상 남우조연상, 2007 MBC 방송연예대상 남자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민남편’으로 불리는 유준상은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배우로, 특히 드라마, 예능을 통해 우리와 친숙하다. 주요 뮤지컬 작품으로는 프랑켄슈타인, 로빈훗, 삼총사, 잭 더 리퍼, 그날들, 레베카 등이 있으며,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2015 SBS 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2012 KBS 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성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노래실력과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민영기는 힘있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 위의 귀공자’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제9회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시작으로 제1회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화성에서 꿈꾸다,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 이순신을 비롯해 삼총사, 레베카, 노트르담 드 파리, 명성황후, 잭 더 리퍼, 엘리자벳, 모차르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위대한 켓츠비, 지킬앤하이드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주위를 압도하는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와 개성 있는 캐릭터로 대한민국 뮤지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법래는 성악을 전공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오페라에 도움이 되고자 연기를 배우기위해 서울예술단에 입단했다. 그곳에서 한국 창작뮤지컬의 전설이 된 ‘살짜기 읍서예’의 리메이크작으로 데뷔했으며 이



듬해 그 작품으로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0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본격적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기 시작한 김법래는 2008년 노트르담 드 파리의 과지모토역으로 그해 제 14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제2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최고의스타상을 수상했다.

‘ئم유민법’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들만의 콘서트이다. 감미로운 미성과 마성의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ئم유민법’의 무대에서는 귀가 닳도록 들어온 뮤지컬의 장면도, 가요도 새롭게 귀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다. 뮤지컬 갈라쇼가 아닌, ‘ئم유민법’만의 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노트르담 드 파리 중 대성당들의 시대를 첫 곡으로 지킬 앤 하이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날들, 잭더리퍼, 프랑켄슈타인 등 유명 뮤지컬 넘버와 가요, 팝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솔직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11

2018 NOVEMBER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사랑채극장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시실

2018 삶과 작업전 '부산미술의 새 지평 & 전국지회 초대작가전'
11월 2일(금) ~ 11월 8일(목)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장
박동호 010-3848-2421

제14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1월 23일(금) ~ 11월 25일(일)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제36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11월 26일(월) ~ 12월 2일(일)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정태정
010-5488-3375

4

정율스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
Buddha's(010-2230-5498)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중 초대/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010-2831-2836)

제7회 라무지카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첼 2만원·1만원
라무지카앙상블(010-4560-5322)

5

제21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클래식과 뮤지컬의 향연' 19:30
첼 초대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010-9287-6350)

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년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8 Dance project EGERO 2nd 정기공연
'수직과 수평' 20:00
중 2만원·1만원
Dance project EGERO(070-8878-0188)

11

Turn Toward Busan_2018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18:00
대 선착순 무료/부산일보사(461-4437~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사랑해요 당신' 15:00, 18:00
중 7만원·6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유혜성 플루트 독주회 17:00
첼 전석 2만원/유혜성(010-7933-8800)

12

제22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 그리고 바다' 19:30
대 2만원·1만원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010-2752-9923)

첼리스트 김규식 전국 투어 리사이틀 19:30
중 6만원·4만원·2만원/지클래프(02-515-5123)

제6회 앙상블 하모니아 정기연주회
'이소진, 김영실 피아노 듀오콘서트' 19:30
첼 초대/김영실(010-7284-1307)

13

18

오페라 '굴뚝 청소부' 19:00
중 KSH Art(010-4874-7068)

19

제2회 부산여고 동백합창단 연주회 19:30
중 동백합창단(010-4197-1110)

제20회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 정기연주회
19:30
첼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010-3122-3970)

20

25

부산가톨릭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전석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010-8509-0046)

부산여자대학교 무용전공 사제동행 프로젝트
'춤-나래를 달다' 17:00
중 초대/부산여자대학교(850-3261)

제54회 부산예술가곡 연주회 18:00
첼 초대/부산예술가곡(010-3884-4623)

26

고신대학교 음악과 40주년 피아노 콘서트
19:30
중 (주)문화공감(990-2231)

2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부산오페라 워크_오페라 인 콘서트 '나부코'
대 5만원·3만원·2만원/온누리오페라단(990-2231)

금성하모니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금성하모니(010-3588-2611)

온다도로 성악아카데미 연주회 'Ten Tenors'
19:30
첼 전석 3만원
온다도로 성악아카데미(010-5535-5026)

WED	THU	FRI	SAT
	<u>1</u>	<u>2</u>	<u>3</u>
	<p>2018 제10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19:30 대 초대/KNN(850-9568)</p> <p>클라세 콰이어 창단연주회 19:30 중 무료/단무장 박동욱(010-5585-182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재혁 × 이은결 IMAGES' 19:30 대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 창단연주회 19:30 중 초대/나눔행복합창단(525-9100)</p> <p>김정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전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더 솔로리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17:00 대 무료/더 솔로리스트(516-5999)</p> <p>부산경찰 음악동아리 '지음' 제4회 정기연주회 19:00 중 무료/지음(010-3198-5811)</p> <p>부산어머니 오케스트라제17회 정기연주회 19:00 전 초대 부산어머니 오케스트라(010-4544-7049)</p>
<u>7</u>	<u>8</u>	<u>9</u>	<u>10</u>
<p>소프라노 김민혜 귀국 독창회 19:30 전 전석 2만원 아트매니지먼트 이랑(010-9338-8485)</p>	<p>제27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아미티에와 함께하는 베르디의 밤' 19:30 전 전석 1만원 아미티에성악연구회(010-2330-0994)</p>	<p>소프라노 김효주 독창회 19:30 전 전석 2만원 폭스예술기획(055-761-091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윤종신 전국투어 콘서트' 19:00 대 12만1천원·11만원·8만8천원·7만7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사랑해요 당신' 15:00, 18:00 중 7만원·6만원·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7회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가을...사랑을 노래하다' 18:00 전 전석 2만원/M&M 성악연구회(010-4434-6605)</p>
<u>14</u>	<u>15</u>	<u>16</u>	<u>17</u>
<p>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2018 '예술의 밤' 19:30 대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p> <p>2018 출패바람 기획공연 강주미 여섯 번째 홀출 '和風' 20:00 중 전석 2만원/강주미(010-6226-8906)</p> <p>BCMS양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전 전석 1만원 BCMS양상블(010-4006-0059)</p>	<p>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 초대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010-4556-6703)</p> <p>문화윤곽과 함께하는 가을 힐링콘서트 19:30 중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문화윤곽(010-7573-3555)</p> <p>소프라노 김예민 귀국 독창회 19:30 전 초대/김예민(010-4198-4835)</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5회 정기연주회 '만추(晩秋)'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오페라 '굴뚝 청소부' 15:00, 19:00 중 KSH Art(010-4874-7068)</p> <p>소프라노 황신영 독창회 19:30 전 초대/황신영(010-3855-4244)</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2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대 무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오페라 '굴뚝 청소부' 15:00, 19:00 중 KSH Art(010-4874-7068)</p> <p>위은정 귀국 피아노독주회 17:00 전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u>21</u>	<u>22</u>	<u>23</u>	<u>24</u>
<p>◇ 부산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업경대'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 부산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업경대'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19:30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제1209회 MBC목요음악회 '발달장애인 앙상 블 더날개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19:30 전 무료/(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제1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개막식 주제강연 15:00 중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음악회 '슈베르티 아데:죽음도 막지 못한 음악에 대한 열정' 19:30 전 전석 1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염유민법 전국투어콘서트-부산' 19:00 대 12만1천원·9만9천원·7만7천원·5만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홍선화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전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u>28</u>	<u>29</u>	<u>30</u>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4 '오페라 이야기 III' 11: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양태순의 춤 19:00 중 전석 3만원/양태순예술원(010-8916-2677)</p> <p>김문영 피아노 리사이틀 20:00 전 전석 1만원/김문영(010-4033-8708)</p>	<p>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The Great Composers '3B' 19:30 전 2만원·1만원/조혜운(010-6295-855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부산오페라 워크_솔로페라단 그랜드 오페라 갈라콘서트 'The Big Night' 19:30 중 15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로페라단(1544-9373)</p> <p>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9:30 전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11

2018 NOVEMBER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p>전시실</p> <p>2018 한·중 국제서화교류전 11월 3일(토)-11월 7일(수) 제1, 2전시실 박영주 010-2555-5335</p> <p>EXOTIC BEASTS 그룹전 11월 9일(금)-11월 11일(일) 제2전시실 이정민 010-2673-4960</p>	<p>제38회 부산미술제 11월 12일(월)-11월 18일(일) 제1, 2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p> <p>토백회전 11월 19일(월)-11월 25일(일) 제1전시실 육지선 010-9858-9493</p>	<p>그림미조은사람들 11월 19일(월)-11월 25일(일) 제2전시실 김해자 010-2489-9593</p> <p>둘이 좋은 사람들의 세번째 이야기 '형형색색 추상전' 11월 30일(금)-12월 2일(일) 제1, 2전시실 이강군 010-8242-3300</p>
<p>4</p> <p>제17회 부산광역시장배 보디빌딩선수권대회 10:00, 14:00 대 전석 1만원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500-7966)</p>	<p>5</p>	<p>6</p> <p>청춘 100세콘서트 '웃음한바탕' 13:00 대 무료/국민노후복지문화회(293-8778)</p> <p>◇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 팝스양상블의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19:30 소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11</p>	<p>12</p>	<p>13</p> <p>제12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13:30 대 초대/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554-0159)</p> <p>부산농협 상생발전대회 13:00 소 무료/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606-8086)</p>
<p>18</p>	<p>19</p>	<p>20</p>
<p>25</p> <p>◇ 주현미와 오케스트라의 'Serenade'-부산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26</p>	<p>27</p> <p>희망울림콘서트 15:00 대 무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505-3117)</p> <p>위드스트링양상블 1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19:30 소 위드스트링양상블(010-7565-0280)</p>

WED	THU	FRI	SAT
	<p align="center">1</p> <p>제65회 한얼노인교육축제 13:00 대 무료/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637-5983)</p> <p>모여락(樂) 당.나.귀 19:00 소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627-8521)</p>	<p align="center">2</p> <p>제6회 BBS마인드힐링콘서트 19:00 대 무료/BBS부산불교방송(797-5120)</p> <p>난타로 여는 제2의 인생 18:00 소 무료/다이아엔터테인먼트(642-8090)</p>	<p align="center">3</p> <p>(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22주년 기념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14:00 대 무료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p>
<p align="center">7</p> <p>2018년 부산광역시대회 및 제49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14:00 소 무료/민족통일부산시협의회(517-5557)</p>	<p align="center">8</p> <p>부산 YWCA 72주년 기념콘서트 '장미여관 부산콘서트' 19:30 대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부산YWCA(441-2221)</p> <p>제24회 홀로어르신 어울림 효 한마당 13:00 소 무료/(사)부산연예인협회(644-3028)</p>	<p align="center">9</p> <p>저 하늘을 우러러보는 뜻은 19:00 소 무료/(사)시읽는 문화(949-2411)</p>	<p align="center">10</p> <p>2018년 제4회 부산국악축제 II 19:00 대 초대/(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 align="center">14</p> <p>풍류데리고 세 번째 나들이 19:00 소 무료/원기등 국악예술단(010-4145-4025)</p>	<p align="center">15</p> <p>봉생문화재단 설립 30주년 축하공연 19:00 소 무료/(사)봉생문화재단(462-8364)</p>	<p align="center">16</p> <p>제13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19:00 소 (사)생명나눔살천 부산지역본부(853-0429)</p>	<p align="center">17</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5회 부산직장인밴드경연대회' 15:00 대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 align="center">21</p> <p>제20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러시아로부터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19:00 대 초대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605-5116)</p> <p>극단 바문사 '그리워할, 연(戀) 19:30 소 전석 3만원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554-8209)</p>	<p align="center">22</p> <p>극단 바문사 '그리워할, 연(戀) 19:30 소 전석 3만원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554-8209)</p>	<p align="center">23</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Les Miserables' 20:00 대 2만원·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풍물예술봉사단 정기공연 19:30 소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p>	<p align="center">24</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Les Miserables' 17:00 대 2만원·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 align="center">28</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무료영화상영회 '택시운전사' 14:00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 align="center">29</p> <p>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 19:00 소 부산종교인평화회의(626-2778)</p>	<p align="center">30</p>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김용걸 몸짓 발레와 남명렬 품격 연극으로 함께 한 오페레타 ‘박쥐’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오페레타 박쥐’

팔케박사는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남작 아이젠슈타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무도회를 열어 초청하고, 아내 로잘린데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에 연인 알프레드를 불러들이는 등 서로 속이고 속이는 에피소드 끝에 팔케 박사와 사람들이 나타나 무도회가 복수를 위한 자리였음을 유쾌하게 밝히고, 로잘린데와 아이젠슈타인은 서로 용서한다.

오페레타 ‘박쥐’ 공연모습



오페라는 언어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원은 연극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언어로 된 극은 시간의 흐름이 현실과 거의 동일하지만, 음악으로 이루어진 극은 시간의 흐름, 즉 극의 진행이 언어 자체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진행 자체로 볼 때는 조금 느릴 수 있다. 그래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동시에 극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수 백년간 작곡가들은 극과 음악의 일치와 긴밀한 화합을 시도하고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로시니는 레치타티보(Recitativo, 서창)라는 형식을 빌어 대사에 신선한 음정(음가)을 넣어 극의 진행과 스토리텔링을 꺾어내고, 모차르트 역시 레치타티보의 천재지만 ‘마술피리’에서는 징슈piel(Singspiel; singen 노래하다 + spielen 놀이, 연주하다)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바그너는 유도 동기(Leitmotiv)와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을 통해 극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19세기 후반부터 오페레타를 잉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오페레타(Operetta)’란 경가극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서 뒤에 붙은 ‘-etta’는 ‘작고 귀여운’의 뜻으로 오페라보다 짧거나 가벼운 오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주제보다 우리가 아는 TV 드라마 ‘파리의 연인’, ‘커피프린스’ 같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무겁지 않은 주제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굳이 선행 학습을 하지 않아도 관람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다. 예전에 소개한 ‘메리 위도우’ 같은 작품도 오페레타이다. 그래서 마치 호텔 극장의 쇼 같이 춤과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하고, 신나고 유쾌한 박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는 2016년 말, 한국의 유력 정보 언론 회사가 주최한 ‘Die Fledermaus(The Bat)’, 바로 오페레타 ‘박쥐’의 연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당시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 국립오페라단을 비롯 전국의 수많은 단체에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박쥐’ 공연이 성황인데, 내게 ‘박쥐’는 첫 연출이었기에 그들과 차별화되면서도 높은 수준의 극과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 고심을 하다가 몇 년 전 국립오페라단에서 갈라콘서트의 한 섹션인 ‘박쥐’ 서곡에 발레 장면을 만들었던 순간이 기억났다. 당시 국립오페라단 측에서는 발레를 넣자는 나의 의견은 좋지만, 그 한 장면을 위해 수 십명의 무용수를, 그것도 국립발레단을 넣기에는 제작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나는 같은 국립단체끼리 협력한다면 그 한 장면이 오페라와 발레라는 장르의 텔레야 뿔 수 없는 무대 예술 행위의 극치점이 될 거

라 연출자로서의 고집을 부렸고, 부랴부랴 국립발레단에 의뢰해 다행히도 간신히 섭외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프리마돈나 김리희를 비롯 한국 최고 무용수들의 모습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도 나는 발레 장면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행히 주최 측이 '나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한 장면을 위해 굳이...' 라는 난색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며 최고의 팀을 데려오라고 했다. 오케이 받는 순간-사실 오케이 받기 전 이미- 나는 곧바로 김용걸 교수를 생각했다. 그는 최고의 발레리노로서 아직도 활동할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오래전 다녔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무용수로서 그의 시원한 기력지에서 오는 매혹적인 라인을 직접 보기에는 늦은 섭외였지만, 안무자로서 정상급의 무용수들을 투입해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성악가들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을 찾았고, 원활하게 원하는 캐스트로 섭외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한 가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아쉬움이 남기에 '뭘지?'하며 고심 끝에 결국 그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3막 감옥의 간수 프로쉬역을 누구로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다. 3막을 시작하자마자 한 잔 걸치고 거나하게 취해 끊임없이 혼자 대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대사 안에서 세상에 대한 풍자와 해학까지 멋지게 해낼 연극배우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누굴 해야 할까? 마냥 무조건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품 있고, 음성 자체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우리 공연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프로덕션 미팅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시간이 되었고, 사무실 앞 중식당에서 얼큰한 짬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음성이 들렸다. '경험해보세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하며 영화배우이지만 연극배우로 내게는 더 익숙한 남명렬 배우의 광고 멘트가 딱 나오는 것이었다. "에우레카!!!(Eureka!!!, 유레카의 이탈리아 발음)". 내가 찾는 느낌의 프로쉬는 바로 이 분이였다!!! 곧바로 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바로 연락처를 입수할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나 이 작품에서는 프로쉬라는 인물이 마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길라잡이 베르길리우스 같은 역할이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너무나 잘 맞을 것 같다고 요청을 했고, 그 분도 흔쾌히 수락했다.

한 작품의 연출을 하면서 천군만마를 얻고 시작하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와 하느냐가 얼마를 받고 하느냐

Die Fledermaus

보다 더 중요하니까... 김용걸 교수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동작의 발레를 선보이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냈고, 남명렬 대배우 역시 연출가로 하여금 계속 생각할 수 있게 윤향유를 공급해 주었다. 하루는 김용걸 교수가 나에게 참고하기 위해 괜찮았던 영상이라며 국립발레단이 몇 년 전 했던 '박쥐' 서곡의 무용 장면을 보여 주었다. 나는 기분이 묘하고 으쓱했다. 내가 했던 작품이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구나. 물론 그는 이미 그전에 자신의 그림을 모두 그려놓고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장면을 만들어냈고, 나 역시 잘 만들어진 그 몸짓의 캔버스에 예쁜 조명과 구도로서 틀이 잘 짜여진 액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리허설에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무용수들이 음악 안에서 그 순간을 발산할 때의 그 감동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다. 공연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김 교수와는 바로 다음해인 2017년 '아이다' 공연으로 다시 이어져 개선 장면에서 황홀한 발레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남명렬 선생님은 내게 무한한 영감을 주셨는데, 특히 틈만 나면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배우로서 귀감이 되었다. 성악가들 역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위 말하는 연주력=경기력 향상으로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셨다. 대사 한마디, 단어 하나뿐 아니라 한음절 한음절 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아주며 큰 문장의 숲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진짜 프로와 일할 때 편하고 신나는 짜릿함은 관객에게로 이어져 무한한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몇 주 전에도 대학로에서 남명렬 선생님과 만나 연극을 관람했고 선생님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셨다. 앞으로도 남명렬 선생님과 김용걸 교수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계속 될 것이고, 획기적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Gallerie dell'Accademia)

1 베네치아 전경 2 베네치아의 낭만, 곤돌라
3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입구 4-5 산 마르코 광장

글·사진 김성민 (주)유료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아! 베네치아여, 정말 아름답구나!

이 감탄사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남긴 말이다. 추운 겨울 힘든 병을 이겨내고 따뜻한 베네치아에서 봄을 맞이한 독일의 철학자는 어느새 멋진 시인이 되어있었다. 시인 바이런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같은 해에 한 달을 사이로 각각 영국과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베네치아를 방문해서 도시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괴테, 스탕달, 헤밍웨이, 마크 트웨인, 바그너, 나폴레옹 등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의 독특한 매력에 빠졌고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

베네치아는 6세기 훈족의 공격을 피해 시민들이 육지 근처에 위치한 모래톱과 갯벌로 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처럼 간척이 목적이 아닌 피난이 목적이었기 때문인지 베네치아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공 섬들은 자연 그대로 유지한 채 수많은 나무들로 바닥을 다지고 지금의 건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후 사람들의 통행과 전기, 가스를 연결하기 위해 육지에서 기차길과 찾길이 연결되었고 크고 작은 400여개의 다리가 118개의 섬들을 연결하여 지금의 독특한 물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베네치아 회화의 중심 아카데미아 미술관

12세기 중세시대부터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인 회화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19세기 초 베네치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오스트리아를 나폴레옹의 군대가 몰아내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약 200여 군데의 종교 건물을 철거하고 40여개의 교구 교회의 재산을 국가로 예속시켰고 그때 많은 작품들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는 학생들을 위해 그 작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한다. 이후 작품들이 늘어나자 베네치아의 남쪽 부분에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교육기관 건물을 합쳐서 지금의 미술관이 탄생되었다.

유럽 박물관 기행



6 티치아노의 유작 '피에타' 7 예수의 시신 앞에 있는 성인은 니고데모로, 티치아노의 자화상으로 추정 8 오른쪽 아래의 그림 속에는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노화가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독특함만큼 르네상스 시대 회화의 기법도 당시 주류라고 알려진 피렌체와는 많이 달랐는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로 대표되던 피렌체의 회화는 그 핵심이 스케치와 구도였다. 레오나르도의 경우 20세가 되기 전까지 붓을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스케치를 강조했고 조각가 출신의 미켈란젤로가 색감보다 구도(스케치)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반면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었던 베네치아는 계산된 구도와 스케치보다 색채감에 집중했고 습한 환경에 적합한 유화 기법을 발전시켰다.

새로운 예술 조르조네(giorgione)의 폭풍(Tempesta)

조르조네는 단 하나의 작품만으로 이탈리아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폭풍'이라는 이 작품은 목가적인 배경 속에서 두 명의 남녀가 등장한다. 그런데 큰 막대기를 들고 있는 남성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성은 '폭풍'이라는 제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개가 넘는 해석이 전해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피사의 고고학자 살바토레 세티스(Salvatore Settis)의 해석인데 이들은 원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성경 속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다. 즉 원죄 이후 신으로부터 받은 형벌인 남자가 감당해야 되는 노동의 어려움과 여성 출

산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멀리 번개가 치는 배경은 신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보다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풍경화를 주제로 그린 그 당시 최초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인물을 그릴 때 배경 정도로 생각했던 풍경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인본주의의 피렌체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작품이었다. 피렌체 사람들은 두 인물의 인체비율과 배경 속 원근법을 문제 삼았겠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표현했던 조르조네는 베네치아 사람답게 회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겼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완성 티치아노(Tiziano)

어린 시절부터 베네치아 벨리니 공방에서 공부하며 이후 조르조네와 함께 독립했던 티치아노는 선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해간다. 티치아노 역시 베네치아 특유의 화려한 색채구성과 섬세한 붓 터치로 이후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특히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초청으로 제국회의가 있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 그림을 그릴 때 티치아노가 실수로 붓을 떨어트렸는데 황제가 무릎을 꿇고 그 붓을 주어주며 황제의 존경을 받을 자



격이 있는 화가라는 극찬을 했다고 한다. 티치아노는 교황청의 초청을 받아 로마에서도 체류했었는데 당시 로마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제자임을 자칭했던 바사리의 주선으로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는 만나게 된다. 아마도 바사리는 기초(스케치)없이 화려한 기교(색채)만 부리는 외국 화가에게 스승의 따끔한 충고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실제 티치아노의 작품을 본 미켈란젤로는 그 자리에서 극찬을 했다고 알려진다. 물론 스케치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미켈란젤로는 바사리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티치아노가 자신에게서 스케치를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티치아노의 마지막 유작 피에타(Pieta)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티치아노의 마지막 유작 '피에타'가 있다. 티치아노의 후기 작품을 보면 대부분 검게 그을린 어두운 배경과 함께 사물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하는 붓터치는 무척 거칠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 티치아노의 작품은 멀리서 감상해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피에타'에서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은 니코데모 성인으로 추정하는데 얼굴을 보면 티치아노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림 오른쪽 아래를 보면 또 다른 작은 그림이 있는

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오라치오와 함께 역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죽음을 앞둔 노화가 자신의 무덤에 두기를 원했던 그림을 어떤 심정으로 그렸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르네상스 당시 피렌체는 문화와 중심이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조르조네나 티치아노는 무작정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서 마침내 르네상스 회화사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정교한 스케치와 구도를 연구하고 그리는 피렌체 회화에 비해 스케치 없이 기교만 부린다고 생각했던 티치아노의 작품은 최근 복원작업을 통해 여러 겹의 색채 층이 발견되었고 그 역시 작품을 위해(다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이 증명되어졌다.

우리들은 저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비교의 결과는 우울감과 열등감밖에 없고 둘 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맞게 도시를 만들었던 베네치아 사람들과 그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화가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의 작품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9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했던 베로네세의 '세리 레위의 집에서의 만찬'

10 조르조네의 '폭풍'



테마가 있는 여행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의령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가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성금 다가선 지난 10월 12일,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의령.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광재우 장군의 고향인 의령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군의 침공을 막았던 충절의 고장이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10월 12일 아침, 테마여행 당점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목정아, 김선영, 김초롱, 최한슬, 성아란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껏 더 높였다.

한시간 반을 달려 충절의 고장 의령을 상징하는 충익사 의병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충익사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 1 관재우 장군과 휘하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판이 보관된 충의각
- 2 충의사 정문인 충의문
- 3 충의사 입구에 우뚝 선 의병탑
- 4 의병박물관에서 열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로비음악회



지켰던 홍의장군 관재우와 17장령, 그리고 무명 의병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홍의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관재우 장군이 싸움에 나갈 때면 붉은 비단 첩릭(帖裏)을 입고 백마를 탄 채 ‘천강홍의대장군(天降紅衣大將軍)’의 깃발을 내걸고 의병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뛰어난 전략과 용병술로 의령을 중심으로 영남 일대를 굳건히 지켜냈다. 특히 정암진 전투는 관재우 장군의 의병 활동 중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싸움으로 의령을 공격하려던 왜군 2만명을 전멸시켰는데 정암진 싸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현장에는 현재 의병루가 세워져 있다.

충의사 입구에 우뚝 서 있는 의병탑은 충의사를 짓기 전, 이미 세워졌던 것으로 관재우 장군과 휘하에 있던 17장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1972년 의령군민들의 성금으로 건립한 것이다. 관재우 장군과 17장령을 상징하는 18개의 백색 고리와 햇불을 상징하는 좌우 기둥으로 만들어진 의병탑은 높이 27m, 폭 5.5m로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의병탑을 지나 충의문을 통과하면 충의각이 나온다. 관재우 장군과 휘하 장수들의 이름과 본관, 호, 증직을 기록한 명판을 보관하고 있는 충의각은 화려한 비각 형식의 다포 팔각식 목조건물로 화려한 단청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충의각 맞은편에 자리한 모과나무는 충의사의 명물 중 하나로, 의병들의 영혼을 닮은 듯 수형이 곧고 아름답다. 높이 12m, 둘레 4m 정도에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과나무로 알려져 있다. 홍의문을 지나 위패가 모셔진 충의사로 들어선다. 충의사는 관재우 장군의 시호를 따서 지은 사당으로 매년 4월 22일에는 의병제전 행사의 하나로 추모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음력 8월 28일에는 관재우 장군의 탄신 다례를 올리고 있다. 한쪽에 자리한 기념관에는 관재우 장군의 기마도와 의병창의도 등 5점의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재우 장군이 말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한 망우정이 복원되어 있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념관까지 모두 둘러본 회원들은 바로 인근에 자리한 의병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의병박물관은 기존 의령군민문화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던 의령박물관과 충의사 기념관을 합관, 지난 2012년 문을 연 박물관으로 고고역사실과 의병유물전시실, 특별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으로 꾸며져 있다. 본격적인 관람에 앞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목정아, 김선영, 김조롱, 최한솔, 성아란 씨의 연주로 박물관 로비음악회가 펼쳐졌다. 베토벤 ‘Ich liebe dich’를 시작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브람스 ‘왈츠’,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등 박물관 내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에 정기회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관람객과 근무하던 박물관 직원까지 연주 하나 놓칠세라 숨죽이며 경청한다. 마지막 앵콜곡까지 아낌없는 박수로 연주회를 즐긴 회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박물관 관람에 나섰다.

테마가 있는 여행



5

5 의병박물관 6·7 한과만들기 체험하는 정기회원

의령 대의면 마쌍리에서 출토된 파수부호 등 선사시대 유물에서부터 의령 용덕면 운곡리 고분군, 부림면 경산리 고분군 등 가야시대 유물을 비롯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로 이어지는 각종 유물이 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있는 고고역사실과 보물 671호로 지정된 장검, 말안장, 팔각대접 등 광재우 장군의 유물과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조선관군 및 의병들의 유물이 전시된 의병유물전시실까지 모두 돌아본 정기회원들은 오후 한과만들기 체험을 위해 의령조청한과에서 운영하는 한과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2년 찹쌀유과 분야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김현의 씨가 운영하는 의령조청한과는 자굴산 기슭의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우리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오염되지 않은 청정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의 한과를 만들고 있다. 특히 140여종의

수목과 야생화가 조성된 넓은 공원과 체험관을 갖추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본격적인 한과체험에 앞서 의령조청한과에서 준비한 맛있는 웰빙 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이날 체험을 통해 만들어볼 한과는 백련초, 시금치, 생강, 카레 등 4가지 맛의 가루가 들어간 옛강정으로, 6개의 팀으로 나뉘어 김현의 씨의 설명과 시범에 따라 옛강정 만들기에 나섰다. 의령조청한과는 물엿이 아닌 천연 조청으로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 찐살에 색깔을 입혀줄 다양한 천연가루와 고소한 견과류까지 더해져 회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4가지 종류의 강정을 직접 틀로 찍어낸 후 포장까지 마무리하며 체험을 끝낸 회원들은 따뜻한 가을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가족,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졌던 의령 테마여행, 의령의 역사와 문화, 그 속에 예술이 어우러져 풍성했던 이번 테마여행은 청명한 가을하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6

7

12.14 ㉓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하는 2018 에코투어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체험장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귀중한 자연유산인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을숙도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체험하는 에코투어.

일정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도착, 을숙도 탐방
- 12:00 중식
- 13:00 부산현대미술관 관람
- 15:30 아미산 전망대 탐방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11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강민숙(연제구 연제로)	우정희(남구 석포로)	한다혜(금정구 식물원로)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윤양희(사하구 사하로)	허윤희(연제구 대리로)
박은진(수영구 남천바다로)	정연민(남구 황령대로)	
서지현(서구 해돋이로)	최요영(연제구 아시아드대로)	

기존 회원

김동례(금정구 금강로)	박정화(남구 동명로)	이진광(북구 모분재로)
김미향(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백영심(동래구 여고로)	장정옥(금정구 서동로)
김재하(서구 감천로)	백채란(연제구 신금로)	
류명식(수영구 광안해변로)	이경숙(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Turn Toward Busan



가수 최백호

사회 손지현

소프라노 구민영

기타 드니성호

지휘 이건륜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2018 평화물결

2018.11.11 (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무료|

지휘 이건륜 / 가수 최백호 / 소프라노 구민영 / 기타 드니성호 / 사회 손지현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주최|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공연문의| 부산일보사 051)461-4437~8



Les Misérables

— 뮤지컬 갈라콘서트 —

2018. 11. 23(금) 오후 8:00
11. 24(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지휘 | 전 진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Look Down / At the End of the Day / I Dreamed a Dream / Who am I? / Master of the House / Stars /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n My Life / A Heart Full of Love / On Day More / On My Own / Drink with Me / Bring Him Home / Turning / Epilogue

| 주최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 입장료 |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 예매 | www.bscc.or.kr

| 문의 | 051)607-3116(시립합창단), 051)607-6074~5(정기회원)

| 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가족할인(3인이상 가족), 합창매니아(이전 합창단 티켓 소지자), 외국인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오페라 갈라콘서트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고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지홍,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임성규, 조운환, 바리톤 우주호, 박대용이 출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비롯해 로시니, 도니제티, 베르디, 레하르, 생상스, 구노, 마스카니, 비제, 푸치니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이끈다.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프라노 박지홍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브레샤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서울시오페라단 '마술피리'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다수 오페라와 오페레타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진은 독일 유학 당시 튀링엔 오펜스튜디오 신인가수에 발탁되어 독일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한국의 카르멘'이라 불리는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미국 뉴욕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한국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11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후 귀국, 국립오페라단 '카르멘'의 주인공으로 국내에 데뷔한 후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너 국윤중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최고의 콩쿠르인 스위스 제네바콩쿠르에서 우승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국립오페라 시즌 개막작 '마농'의 데그리외역으로 호평을 받았다. 테너 임

성규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012년 귀국 전까지 잘츠부르크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며 모차르트 전문성악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운환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후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리톤 우주호는 이태리 벨칸토를 구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가수라는 호평과 함께 현재 마포문화재단 생활예술음악감독을 맡아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리톤 박대용은 이태리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C.E.D.E.M 국제성악아카데미, 루이지 보케리니 성악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일시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사랑해요 당신



2017년 4월 초연당시 객석점유율 117%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5월 앵콜공연에서 누적관객 3만5천명을 돌파해 화제를 낳은 연극 '사랑해요 당신은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던 평범한 부부에게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인 작품이다. 특히 연기 베테랑 이순재, 정영

숙, 장용, 오미연 배우의 리얼한 부부 연기가 더해지면서 공연 당시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우리네 부모,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 드라마 같다', '이 시대 최고 연기의 신들이 그려내는 싱크로율 200%의 진짜 부부보다 더 부부같은 리얼한 연기', '당연한 것으로 느꼈던 가족의 사랑과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게 하는 작품이다' 등 많은 호평을 받았다.

'사랑해요 당신은'은 현재 극단 사조의 대표이자 이번 연극의 프로듀서를 맡은 유승봉 대표가 이상용 작가와 함께 3년간의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 만든 공감프로젝트 연극으로 평범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 관객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다. 지난 1979년 창단된 극단 사조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사랑해요 당신'

—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을 소재로 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부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11월 10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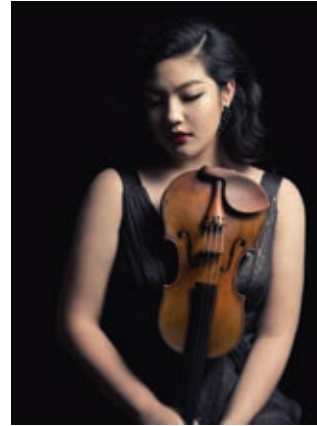
단조로운 TV연기에서 탈피해서 연극을 통해 관객들과 직접 무대에서 호흡하고자 배우 김인테, 이순재, 박근형, 이신재, 남일우, 김용립, 김미숙 등 중견탤런트 10여명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극단이다.

무대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남편은 전직 교사로 퇴임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속 마음과는 다르게 항상 통명스럽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매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살던 어느 날, 아내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단지 건강증인 줄 알았던 아내의 증세는 점점 심해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아내가 치매를 앓고 나서야 남편은 변화하고, 익숙했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연극 '사랑해요 당신은'은 일상 속의 무뎠던 대화와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나서야 내뱉게 되는 마음속 진솔함이 리얼리티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일시 11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최수열
지휘조진주
바이올린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2014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봄', '여름',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비평가들로부터 '강렬하고 매력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연주가라고 극찬 받은 협연자 조진주는 뛰어난 표현력과 깊은 음색, 그리고 섬세한 프레이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연주가 중 한 명이다. 17세의 나이에 2006년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위 수상과 더불어 관중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조진주는 이 후 20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 1위 및 오케스트라상 수상, 2011년 윤이상 국제콩쿠르 2위 수상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했다. 특히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 우승과 바흐상, 로만틱 협주곡상을 수상한 조진주는 이듬해인 2015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선정되며 예술계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2016년 미국 카네기홀 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5회 정기연주회

만추

—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5회 정기연주회
'만추'가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작스텐에서 첫 데뷔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마친 조진주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최근 남미를 순회하며 독주자로서뿐 아니라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조진주는 2016년과 2017년 모교인 클리블랜드 음악원 겸임교수에 이어 2018년부터는 맥길대학교 솔리히 음악학교 부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이번 무대

에서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과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과 '봄', '여름'을 들려준다. 음악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그려내면서 '음에 의한 풍경화'로 불리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특히 각 악장마다 계절을 그려낸 소네트(sonnet)가 악보에 실려 있어 계절마다 바뀌는 정경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게 연주된다. 자신만의 새로운 탱고 스타일로 아르헨티나 탱고시대를 열며 '탱고의 혁명가, 이단아'라 불리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비발디의 '사계'를 자유분방한 탱고음악으로 새롭게 해석한 피아졸라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지막 곡은 러시아 낭만주의 교향곡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힘을 자랑하면서도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감동을 자아낸다.

만추

일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프리뷰



‘업경대’는 김용철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아 지난 2010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식초청작으로 선보여 그 당시 불교적 세계관을 동양적 감성으로 밀도있게 형상화하여 침체에 처했던 한국창작춤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통춤사위의 적절한 변용과 특유의 몸짓언어로 주목받으며 그 해 대한민국무용대상 군무부분 베스트 5, 한국춤비평가협회 작품상 베스트6, 공연과 리뷰 PAF 춤 작가상, 연극재 무용작품 베스트5 등 주요 상을 휩쓸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6년 부산시립무용단과 새롭게 재연출한 무대가 호평받으면서 이듬해인 2017년 제21회 PAF 예술상에서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을 수상한 ‘업경대’는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으로 다시한번 선보인다.

작품명인 ‘업경대(业镜台)’는 사람이 죽어서 명부(저승)로 넘어갈 때 생전의 죄업을 비춰주는 거울을 뜻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49일간의 생사관을 제의적 형식 속에 응축시킨 작품으로, 죽음과 심판이라는 자칫 무거운 구도를 다양한 안무와 무대 연출을 통해 감각적으로 수용했다. 작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거울이 부르는 노래’, 2장 ‘영혼의 습지’, 3장 ‘욕망의 무게’, 4장 ‘지워진 자를 위한

부산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업경대(业镜台)

—

지난 2016년 김용철 예술감독 취임 첫 정기공연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창작무용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춤 ‘업경대’가 다시한번 무대에 오른다.

난장’으로 이어진다. 눈보라를 연상케 하는 무대 미술, 거대한 천이 휩쓸고 간 무대, 종이의 구김소리 등 소도구적 무대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으며 무용수들의 절제된 내면연기와 결합된 역동적 춤사위를 통해 이미지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남녀 30인 듀엣 등 총 60여명이 펼치는 대 군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에서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한 시도로 망자(亡者)역할의 중국인 무용수 쑹춘회를 비롯해 중국연변대학교 조선민족무용 전공자인 린전호, 리씨핑 등과 함께 무대에 선다.

한국 창작춤의 선두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철 예술감독은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을 거쳐 구미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김용철은 한국춤의 전통을 계승하되 창작춤에 있어서는 현대성, 다양성 등 현대예술이 요구하는 고도의 테크닉과 기교를 겸비하고 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적 컨템퍼러리 작품과 해외투어를 개척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보헤미안’으로, 그의 행보에 큰 주목을 받고있다.

업경대

일시 11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해오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 해금 연주자 김철, 마두금 연주자 에르데네바타르 멩크바야르, 통소 연주자 최민과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한국 등 아시아의 젊은 전통음악인들로 구성된 창작레지던시 '2018 아시아소리프로젝트'가 출연, 각국의 다양한 협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된 '2018 아시아소리프로젝트'의 무대로 꾸며진다. 온소리예술국악관현악단 타악수석인 노준영을 대표로 서수진(아쟁, 한국), 이정인(판소리, 한국), 투야젯제 켄렌(우르틴 두, 몽골), 샤호브즈 다브로노브(도이라, 우즈베키스탄), 아루카 울지사이칸(야트가, 몽골), 쿠르바노브 소키종(아프간/카슈카르 루밤, 우즈베키스탄), 딘반호아(단보우, 베트남), 부두쿠앙민(단트란, 베트남)으로 구성된 '2018 아시아소리프로젝트'는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의 공동 창작활동을 통해 발표된 '인투더코스', '쑈국쑈국', '여기야 차'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거문고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코스모스 (Cosmos)'로 부산거문고악회 대표이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권은영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우주의 생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한국과 중국, 몽골 등 세 나라 각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이 11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과 발전과정을 음악의 작은 공간 속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창작초연으로 만날 수 있다. 전통해금을 개량한 중국 연변의 2선 해금을 만날 수 있는 '다시핀 도라지꽃'은 길림성무형문화유산 '해금' 예술 전승인,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철의 협연으로 창작초연으로 들려준다. 몽골의 자연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초원의 바이올린'이라고 불리는 마두금

협주곡 '원'은 몽골국립예술극장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에르데네바타르 멩크바야르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악기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하나되는 것을 묘사한 곡으로 마두금 연주와 함께 몽골 특유의 창법인 흐미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 곡인 통산협주곡 '풍전산곡-바람이 전해준 산의 노래'는 현재 남한에서 전승이 거의 끊긴 통소연주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중국 문화부 주최 제2회 국가급 문화예술정부장-문화장(文華獎) 민족기악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고 현재 통일일상블 '원(圓), one' 맴버로 있는 최민의 연주로 들려준다. 함경도 지역의 민요 '아사랑가', '함경도 농부가', '나질가(별목가)', 시나위(심방곡) 형태의 '신아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단의 변화를 통해 통소의 거칠면서도 호소력 있는 음색과 흥겹고 신나는 국악관현악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일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Les Miserables



특히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는 지난해 11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별히 올해는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장 발장’의 이야기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혁명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그리고 있다. 1985년 10월 8일 런던 바비칸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 무대에 진출한 ‘레미제라블’은 1987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진 후 지금까지 전 세계 43개국 309개 도시에서 22개 국어로 공연되는 등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영화로는 드물게 국내 관객 500만명이 넘는 대 흥행을 기록하며 당시 ‘레미제라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레미제라블’의 주옥같은 넘버를 선정, 오케스트라 반주와 합창곡으로 편곡해 들려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정통 합창음악에서부터 창작합창, 가요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합창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로 색다른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 ‘레미제라블’의 가장 유명한 넘버 중 하나로, 사랑하는 마리우스가 자기의 마음도 몰라준 채 코제트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불쌍한 에포닌이 마리우스에 대한 감정을 담아 애절하게 부르는 ‘On my own’, 공장에서 쫓겨난 판틴이 아름다웠던 날들을 회상하며 부르는, 잔잔하고 가슴을 울리는 ‘I dreamed a dream’ 같은 서정적인 곡에서부터 혁명의 리더 앙줄라가 마리우스를 격려하며 부르는 혁명 노래로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

르세에즈의 멜로디를 담고 있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함께 부르는 곡으로, 각 인물들에게 주어진 메인 멜로디가 모두 들어 있는 대곡 ‘One day more’까지 총 15곡의 주요 넘버들이 합창음악을 통해 소개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스토리가 있는 합창 공연으로, 부산시립극단 단원을 역임하고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포항국제연극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박찬영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치 뮤지컬 한편을 직접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해 준다.

일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을 한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총 세차례 진행되는 이번 시즌 4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해설로 오페라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018년 마티네콘서트의 마지막 주인공은 베리스모(사실주의)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인 푸치니와 조르다노,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바리톤 나현규의 협연으로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와 조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를 주요 아리아를 통해 소개한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는 최고의 가수인 토스카와 그의 연인인 자유주의 화가 카바라도시,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는 경시총감 스키타피아가 그려가는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번 무대에서는 ‘오묘한 조화’, ‘가라 토스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 오페라 전막에 흐르는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베리스모 오페라의 걸작이라 불리는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프랑스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III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세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마지막 무대가 1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투쟁을 했던 실존 시인 ‘앙드레 세니에’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5월의 어느날처럼’, ‘돌아가신 어머니’, ‘조국의 적’, ‘우리의 죽음은 사랑의 승리’ 등 주요 아리아로 그의 뜨거웠던 일생을 그려낸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창원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마리오 텔 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스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10회 이상 수상했으며,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로리스트로 활동해왔다. 경성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테너 김지호는 그동안 쿠바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주역 출연 및 어워드 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국제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예술인(2007년), 2012년 부산음악상 및 부산예총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창원대학교 외래 교수, 이탈리아 Tria management 소속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나현규는 Ferruccio Tagliavini 국제콩쿠르 1위, Piero Cappuccilli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해오고 있다.

마티네콘서트

일시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8 부산오페라

WEEK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8 부산오페라 WEEK’ 무대가 11월 27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 4월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뉴아시아오페라단(단장 그레이스 조)과 온누리오페라단(단장 이홍길), 솔오페라단 (단장 이소영)이 참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제작진이 참여하는 대형 오페라 무대에서부터 오페라 갈라콘서트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오페라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온누리오페라단과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함께하는 Opera in Concert ‘나부코(Nabucco)’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년 부산오페라 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온누리오페라단으로, 고신대학교 음악과와 함께 오페라 인 콘서트 ‘나부코’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2004년 오페라의 대중화와 기독교 문화선교를 위해 창단한 온누리오페라단은 창단공연 ‘모세’를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지역 오페라 발전과 오페라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성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이야기를 각색한 ‘나부코’는 바벨론의 왕 나부코와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의 두 딸이 펼치

는 야망과 복수, 사랑과 용서를 그린 베르디 최고의 걸작 오페라로, 특히 3막에 나오는 ‘히브리노예들의 합창’으로 더욱 유명하다. 전작이었던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의 실패로 실의에 빠져있던 베르디가 재기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작품이 완성되던 1842년 그 해, 이태리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후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떨치게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총감독 이홍길, 연출 김성경, 지휘자 성상철이 지휘하는 네오피 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성악가 안세범, 이선미, 양재원, 정은미, 이창원, 이준오, 박용선, 김경미와 고신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부산오페라 앙상블이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온누리오페라단(990-2231, 010-3839-1084)



솔오페라단 Grand Opera Gala Concert 'The Big Night'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솔오페라단이 2018년을 결산하며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The Big Night'를 무대에 올린다. 작곡가 도니제티, 베르디, 푸치니의 대표 오페라인 '루치아 디 라메르무어',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갈라 공연으로,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벨베데레 콩쿠르, 레오폴도 무뇨네 콩쿠르, 마쵸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콩쿠르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레

지에로 콜라투라 소프라노 Gilda Fiume와 몽세라 까바예 국제성악콩쿠르, 빌바오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고 상파울루 오페라극장, 산 카를로 국립극장, 피렌체 국립극장 등 세계 유명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테너 Sergio Escobar, 그리고 신정순, 박현정, 김지호, 조윤환, 박대용, 조현수, 이태영, 권영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올웨이코리아오케스트라가 출연, 오페라 애호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특히 오페라를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관객들을 위해 오페라 전문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와 함께 감칠맛 나는 오페라 해설을 곁들이면서 오페라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오페라에 다가갈 수 있다.

입장료 R석 15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뉴아시아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2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부산오페라 WEEK 마지막 작품으로는 뉴아시아오페라단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오른다.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베르디의 다른 오페라와 달리 남녀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오페라 전체를 모르더라도 스토리나 몇몇 아리아는 알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오페라이다.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초연 당시에는 내용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이들의 비난에도 전

유럽의 관객들이 열광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48년 1월, 국제오페라사가 '춘희'라는 제목으로 초연무대를 가지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라는 명예를 안기도 했는데, 한국 오페라 70주년을 맞는 올해,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으로도 무대에 많이 올려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총감독 그레이스 조, 연출 엄숙정, 지휘자 실바노 코르시가 지휘하는 부산로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박은주, 박현진을 비롯해 강훈, 이장원, 김기환, 석상근, 김민지, 이광진, 김정대, 박순기, 김민성, 박상진과 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메트로오페라합창단, 뉴아시아무용단이 출연해 오페라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해준다.

입장료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4만원
문의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어쿠스틱과 일렉트로닉클래식 사운드의 즐거운 만남 블로시 현악5중주단 부산공연



◆ 클래식음악해설가, 전 MBC PD 김옥균

어쩌다 훌륭한 음악회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기다리고 기대했던 연주회를 듣고 다녀오는 날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눈과 귀를 홀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에 휩쓸리는 기분 좋은 날, 바로 ‘블로시 현악5중주단 부산공연’이 그것이었다.

폴란드 출신의 남성 연주자들로 결성된 현악 5중주팀 ‘블로시(VOLOSI)’가 지난 10월 13일 부산을 찾아왔다. 블로시 현악5중주단의 정확한 장르는 재즈라기보다는 월드뮤직에 가깝다. ‘재즈현악 5중주단’이라고 홍보를 해서 나름 호기심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도 많았지만 첫 곡이 연주되자마자 그 호기심은 장르를 떠나 그저 음악을 즐기려는 관객들로 바뀌었고 말았다.

블로시가 연주한 레퍼토리는 재즈, 록, 팝, 영화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었다. 비틀즈, 본드(영국의 크로스오버 현악4중주단), 아마데우스 현악4중주단, 메탈리카(헤비메탈 밴드), 2Cellos들이 모두 무대로 초대된 느낌? ‘퓨전’도 되고 ‘일렉트로닉 클래식’도 되고 ‘뉴올린즈 재즈’도 모두 가능한 ‘스페셜 리스트 뮤지션’들의 연주무대이니 프로그램 리플릿을 보면서 감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저 즐기면 그만이었다.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5중주단이었지만 무대에서는 다이내믹 마이크 대신 팬 마이크를 사용해서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제1바이올린 주자의 피치카토의 울림이 선명하게 객석에까지 빨리 전해지는 것도 신선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헝가리 혹은 폴란드 집시들이 연주하는 흥겹고도 송고한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애절함과 파워풀하면서도 유쾌한 무대였던 블로시의 부산 공연은 한 곡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무대에 70분만 연주하는 러닝타임이 조금은 아쉬웠던 공연이었다.

“혹시 저들이 연주한 악기가 전자악기입니까?”라고 어느 한 여성 팬이 공연을 마치고 필자한테 물었던 기억이 난다. 순수한 정통 클래식 악기인데 음향 장비를 사용하여 소리가 그렇게 울렸다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콘트라베이스주자는 마치 락 공연의 베이스기타 소리를 내기도 했고 첼로연주자는 악기를 뒤집어 엎어서 두드리기도 하고 현의 맨 밑동을 활충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굵어서 소리를 내는 사운드를 표출하였으니 전자악기냐고 물었던 것도 당연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클래식 정통악기를 들고 나왔으니 한번쯤 마이크를 떼고 오리지널 클래식 레퍼토리 한 두곡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음악을 선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남았다.

어쨌거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얼마나 많은 연습량으로 호흡을 맞추었으면 악보도 보질 않고 ‘전곡을 암보로 연주를 할까?’에도 놀랐던, 개인적으로 놀랍고 아주 특별한 연주회 관람이었다. 관객들을 존중하는 연주태도도 높이 살만하였다. 끝까지 서서 연주하는 출연자들의 무대매너와 앙상블의 완성도도 높았고 록 음악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컬러풀한 조명이 어우러진 무대장치 및 무대배경 등이 공연의 콘셉트와 어울린 공연이었다.

가끔 사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45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시민회관이 확 바뀌고 달라졌다.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고 이번 블로시 공연을 통하여 부산시민의 높은 공연문화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고 미래를 환하게 빛나게 해줄 초석이 된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부산시민회관 공연기획팀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산 시민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기다려 왔다.

빈 고전음악의 진정한 향기를 전하다

르노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 ...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세계 최정상 솔리스트와 실내악단이 선사하는 멋진 무대가 열렸다. 이날 협연자였던 프랑스 출신의 르노 카푸송은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연주 레퍼토리를 가지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음반 녹음을 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연주자이다. 그리고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1952년 파움가르트너에 의해 결성된 이후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전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실내악단이다. 오랜 시간 전통을 지키며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을 비롯하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는 실내악의 연주를 통해 클래식 본 고장의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세운 웅장한 건축물 같은 앙상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하이든의 교향곡 27번과 59번을 연주하였다. 여유롭게 미소 띤 모습으로 입장한 단원들의 모습에 연주 직전 긴장된 객석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풀려졌다. 이들의 연주는 마치 단단한 암반 깊숙이 기둥을 세우고 지어 올린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성채를 보는 것 같았다.

교향곡 27번의 연주에서는 충분히 이완되어 경쾌한 활의 움직임과 소리의 변화를 리드해 가는 몸의 움직임,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음들의 향연이 음악이 가진 에너지를 가감없이 전해 주었다. 연주자들의 섬세하고 민첩한 현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의 변화는 유연하게 흘러갔고 다이내믹의 변화는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후반부 교향곡 59번에서는 각 악기 군이 각자의 소리에 충실하면서도 날카롭지 않고 다른 소리에 대해 수용적으로 대처하였다. 특

히 인상적인 면은 연주 전반에 걸쳐 짧은 경과구의 한 음조차도 악보에 그려진 만큼의 음길이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인과 관계에 의해 변화해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음악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는 솔로

르노 카푸송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과 5번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 연주하였다. 작고 다부진 몸매에 훈훈한 미소를 띤 르노 카푸송이 객석의 환호 속에 등장하였다. 그는 외모만큼이나 연주에 있어서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간결하고 긍정적이며 명쾌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

5번의 서주가 카푸송의 간결한 지휘로 시작되고 이어서 바이올린의 느린 솔로가 우아하게 서주를 이어 받았을 때 그는 한음 한음에 신중을 기하며 모든 음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말하듯 연주했다. 두 곡의 협주곡을 연주하며 당당한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살아났다. 또한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단호함과 허용의 기준이 명확하여 음악에 막힘이 없이 시원스러웠다. 그리고 두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와 안단테의 선율을 연주할 때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관객을 몰입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선율 위에 듣는 이의 의식을 들어 올려놓았다.

이날 연주를 통해 관객들은 하이든의 교향곡과 모차르트 협주곡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맛있는 음식은 또 먹고 싶고, 좋은 사람은 오래 만나고 싶은 것처럼 르노 카푸송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는 꼭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연주였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일 시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마음 착한 아기 개구리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지난해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세 번째 정기 상연작으로, 매년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창작극을 선보여온 극단 더블스테이지가 백석 시인의 동명의 동화시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 '개구리네 한술밥'은 아무리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개구리 친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훈을 전해준다.

클라쎬 콰이어 창단연주회

일 시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단무장 박동욱 010-5585-1822



지난해 9월,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50세 이하 성인들로 창단한 클라쎬 콰이어 창단연주회.
클라쎬 콰이어는 창단 후 매주 월요일 저녁, 서울과 부산의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미진 지휘자의 지도로 합창을 통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음악적 실력을 쌓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Regina caeli' 등 정통곡에서부터 'Long, long ago', 'The gospel of grace' '서울구경' 등 시대적으로나 장르적으로 다양한 합창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 지휘/임미진
• 반주/박성미, 장소망

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 창단연주회

일 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나눔행복합창단 525-9100



부산와인스쿨 총동문회 원우들로 구성된 나눔행복합창단이 창단 1년만에 마련하는 창단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지난해 10월 11일 창단총회를 가진 후 두차례 워크숍을 비롯해 부산와인스쿨 와인 페스티벌, 인제대학교 백병원 재능기부 음악회,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과수원길, 아름다운 강산,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나눔, 나는 나비 등 수곡
• 지휘/권영기
• 피아노/김경미 • 사회/정현미
• 특별출연/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해브스 싱어즈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Young Artists 협주곡의 밤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사)더 솔로이스츠 516-5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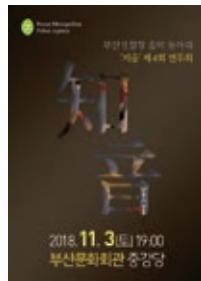
지휘자 박성완이 이끄는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Young Artists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1번 사장조 K.313 1악장
로시니/피렌체의 꽃 파는 소녀
J. 오스몬드/나의 어머니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협연/김경은(플루트), 박서진(소프라노), 박성빈(바이올린), 이난경, 최지연(클라리넷), 해화초등학교 중창단, 양진경(플루트), 김현우(바이올린), 김도영(소프라노), 박나윤(첼로)

부산경찰 음악동아리 '지음'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지음 010-3198-5811



21C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첫 발을 내딛은 부산경찰 음악동아리 '지음(知音)'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클래식기타, 플루트, 바이올린, 색소폰, 통기타, 락밴드, 무용(발리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5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지음'은 그동안 3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연제구 온천천축제 축하공연, 제1회 해운대 바다공연 '여름바다를 수놓다', 연제고문판타지축제 축하공연, 제45회 부산 어린이날 콘잔치 축하공연, 부산-경남-울산경찰청 해운대 여름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협연/국악밴드 하늘선, Charms(드럼 이상진, 바리톤 한정현, 보컬 조창훈)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010-4544-7049



지난 2000년 11월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어머니들의 순수한 음악적 열정과 끼를 선보여온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의 17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시청 로비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국제영화제 플레시몹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온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특히 고아원, 양노원, 병원 등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 지휘/다니엘 S김

정율스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일 시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Buddha's 010-2230-5498



108인의 Buddha's 합창단과 사카디타 앙상블 대표로 우리나라 대표 불교 음성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율스님이 마련하는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정율스님은 운문사 승가 대학 불교음악과, 동국대학교 찬불가 힐링스쿨 전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BTN 불교방송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를 진행하고 있다.

정율스님과 불자들이 구성된 108인의 Buddha's 합창단, 사카디타(비구니) 앙상블, 그리고 각 지역 불교합창단을 지휘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BTN중창단 등이 출연, 인연을 주제로 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전무/김소임(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찬조출연/정호스님(첼로), 도선스님(플루트)

제21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클래식과 뮤지컬의 향연

일 시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010-9287-6350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제 21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회 음악회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BS 오페스 앙상블,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미경, 구민영
- 테너/강학윤, 홍지형
- 바리톤/하병욱, 박찬
- 반주/손혜진, 김경미
- 앙상블/BS 오페스 앙상블(피아노 최은주, 바이올린 여주현, 첼로 이동열)
- 합창/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010-2831-2836



재능있고 역량있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들을 육성하고자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에 창단된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의 무대.

그동안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들의 지도아래 연주실력을 쌓아온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은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을 비롯해 이웃을 위한 봉사연주회로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창단 5주년을 맞아 부산의 원로 플루티스트 이하룡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다양한 앙상블 무대로 선보인다.

- 객원지휘/이하룡
- 음악감독/정옥경
- 음악부감독/조진학
- 수석트레이너/박옥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고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지훈,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임성규, 조윤환, 바리톤 우주호, 박대용이 출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투테'를 비롯해 로시니, 도니제티, 베르디, 레하르, 생상스, 구노, 마스카니, 비제, 푸치니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이끈다.

- 지휘/금난새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제7회 라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Falling in ROMANTICISM

일 시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라무지카 앙상블 010-4560-5322, 010-9321-6209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음악회를 꾸준히 기획, 관객과 만나고 있는 라무지카 앙상블의 7번째 정기연주회.

낭만시대의 대표 실내악곡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임훈교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현악합주와 드라마 '밀회'로 더욱 유명해진 슈베르트 피아노 듀엣곡을 KNN 음악아카데미 진행을 맡았던 황지원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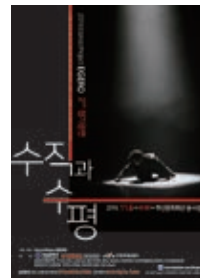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음악회를 꾸준히 기획, 관객과 만나고 있는 라무지카 앙상블의 7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슈베르트/네 손을 위한 피아노 환상곡 D.940
- 멘델스존/피아노 3중주 작품 49
- 멘델스존/현악 8중주 작품 20

2018 Dance Project EGERO 2nd 정기공연 수직과 수평

일 시 11월 6일 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Dance Project EGERO 070-8878-0188



내면적 고찰과 다양한 느낌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을 통하여 움직임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지난 2014년 창단한 Dance Project EGERO의 두 번째 정기공연.

지난 2015년 새물결 춤작가전 최우수상 및 연기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7년 부산무용제 대상 및 안무상 수상, 2017년 전국무용제 3등(은상) 및 연기상을 수상한 Dance Project EGERO는 이번 무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인간본연의 가치와 다양성을 춤으로 표현하고, 수직과 수평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관념과 실재에 대한 이야기를 현상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몸으로 풀어보는 창작춤을 선보인다.

내면적 고찰과 다양한 느낌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을 통하여 움직임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지난 2014년 창단한 Dance Project EGERO의 두 번째 정기공연.

소프라노 김민혜 귀국 독창회

일 시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매니지먼트 이랑 010-9338-8485



서정적인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을 지닌 소프라노 김민혜 귀국 독창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후 도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민혜는 유학시절,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오페라극장 합창객원단원,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보컬양상블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최근 라이프치히 바흐 박물관에서 독창회를 마치고 귀국한 김민혜는 이번 귀국독창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피아노/이가은
• 플루트/김성식

제27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아미티에와 함께하는 베르디의 밤

일 시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2330-0994



지난 1987년 부산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의 무대. 27회를 맞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득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정,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했다.

- 소프라노/양성희, 박현진, 박민영, 이수진, 박소영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양승엽, 김성배, 서훈하, 김현성
• 바리톤/하병욱, 조현수, 오세민
•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 피아노/김경미, 이현주

소프라노 김효주 독창회

일 시 1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폭스예술기획 055-761-0916, 1544-1555



서정적인 소리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매료 시켜온 소프라노 김효주 독창회.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효주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오페라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출연하여 연주자로서의 기본을 다졌으며 유학시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현지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효주는 현재 독일가곡연구회, 경남성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박미은
• 바리톤/최강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윤종신 전국투어 콘서트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

일 시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늘 변화를 추구하며 거침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콘서트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 이번 공연명인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는 윤종신이 지난 8월 발간한 첫 산문집 제목으로, 015B의 1집 앨범 타이틀곡 '똥 빈 거리'에서의 객원 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30년 가까이 대중과 호흡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가수 윤종신의 사랑과 이별, 슬픔과 행복, 음악과 시, 그리고 삶과 창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공연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사랑해요 당신'

일 시 11월 10일-11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을 소재로 사랑과 잊고 살아 가던 부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사랑해요 당신'. 2017년 4월 초연당시 객석점유율 117%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월 앵콜공연에서 누적관객 3만5천명을 돌파해 화제를 낳은 연극 '사랑해요 당신'은 특히 연기 베테랑 이순재, 정영숙, 장용, 오미연 배우의 리얼한 부부 연기가 더해지면서 공연 당시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이 시대 최고 연기의 신들'이 그려내는 싱크로율 200%의 진짜 부부보다 더 부부같은 리얼한 연기'라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7회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가을...사랑을 노래하다

일 시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서울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M&M 성악연구회, 부산음악협회, 대구음악협회 회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동의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 'Orfeo Accademia' 오페라과를 졸업한 신정순은 그동안 이태리 'G. Poggi' 장학금 콩쿠르 우승, 국제성악콩쿠르 'Vigiano Viva' 1등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해 이태리, 프랑스 초청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APEC 칸타타' 특별연주,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에 교향악단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특별출연/바리톤 고훈수, 첼리스트 김경연, Bella 가극중창단

Turn Toward Busan '2018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일 시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선착순 무료
문의 부산일보 461-4437~8



부산일보사와 (재)부산문화재단이 625전쟁 UN전사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모공연 'Turn Toward Busan_2018 평화물결'.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맞춰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가수 최백호, 소프라노 구민영, 기타리스트 드니성호가 출연,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갖는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은 전 세계인들이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에 맞춰 1분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첼리스트 김규식 전국투어 리사이틀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지클레프 02-515-5123



클래식 음악, 재즈, 탕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걸쳐 자신의 음악 지평을 확장해 온 첼리스트 김규식 부산 콘서트. 김규식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독일 예센 국립음대를 거쳐 영국왕립음악원을 졸업한 클래식계의 실력파 아티스트로, 현재 프랑스 'Montpellier International Academy' 초청교수이자 무누스 앙상블 리더, 충무아트홀 '크로스오버 페스티벌' 음악감독, 광고 센터럴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현영경

유혜성 플루트 독주회

일 시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유혜성 010-7933-8800



인제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독동, 트로싱엔 국립음대 마스터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IF플루트앙상블 멤버, 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혜성 독주회. 김해국제음악제(GIMF) 신인음악회로 일찍이 데뷔한

유혜성은 2010 Guam Music Festival, 2011, 2012 미국 라스베가스 한국문화원 초청연주 외에도 '15th JFA Biwako 일본 플루트 컨벤션 선상음악회' 초청연주, '44th NFA San Diego 미국 플루트 컨벤션 POWELL' 초청연주, '2017 AFF Australian Flute Festival', '2018 NFA Orlando 미국 플루트 컨벤션' 초청 연주 등 해외 무대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피아노/이은정
- 기타/김진택

제6회 앙상블 하모니아 정기연주회 이소진, 김영실 Piano Duo Concert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실 010-7284-1307



피아니스트 이소진과 김영실의 듀오무대로 펼쳐지는 앙상블 하모니아의 6번째 정기연주회. 앙상블 하모니아는 그동안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앙상블 무대로 클래식 피아노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 앙상블 하모니아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소진과 부산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실이 우리 귀에 친숙한 브람스와 그리그, 생상, 스메타나, 리스트의 곡을 들려준다.

제22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 그리고 바다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2752-9923



지난 2007년 열정과 도전 의식을 가진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청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프로그램

정승원/오케스트라 모음곡 'Fantasie in Busan' 제4번 '해무(海霧)'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3번 가장조 K.488
베토벤/교향곡 제3번 '영웅'
• 지휘/손영근 • 협연/피아니스트 금찬이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2018 예술의 밤

일 시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이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2018 예술의 밤'.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한국무용, 서예, 기타연주 등 총 6개팀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연주, 한국무용, 가야금, 풍물, 민요판소리 등 5개 예술봉사단이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사회/안숙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부산문화회관

**춤바람 기획공연
강주미 여섯 번째 홀춤 ‘和風’**

일 시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장애인-예술인복지카드 무료)
문의 강주미 010-6226-890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4호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보존회 정회원, 춤패바람 대표로 있는 강주미의 여섯 번째 홀춤 ‘和風’. 부산대학교에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개인출판을 가져온 강주미는 3년만에 갖는 이번 창작춤에서부터 창작춤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 출연/강주미, 임자유, 김채윤, 류다감, 박은경, 김예술, 풍류전통예술원
- 특별출연/박종환 ● 반주/젊은 소리쟁이
- 사회 정재운 ● 연출 백철호

소프라노 김예민 귀국 독창회

일 시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예민 010-4198-4835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의 소프라노 김예민 귀국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노바라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베르첼리 시립음악원, 도니제티 음악학교에서 성악과 오페라, 합창, 뮤지컬 등 분야를 망라하여 음악수업을 받은 김예민은 유학시절, Codogno시에 주최하는 야외콘서트에 출연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 김예민은 귀국 후 현재 향성교회 살롬찬양대 지휘자, 성악 솔리스트양상블 ‘파시오네’에서 활동하며 전문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피아노/최진현 ● 첼로/조선일

BCMS양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BCMS양상블 010-4006-0059



부산의 실내악 발전과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결성된 BCMS(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양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손은혜, 비올리스트 김은진, 김규, 첼리스트 이일세, 정지은, 피아니스트 김정권 등 실력있는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BCMS양상블은 올해 5월 창단연주회 이후 환상적인 호흡과 인상적인 해석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 프로그램**
할보르센/파사칼리아
생상스/피아노4중주
드보르작/현악6중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5회 정기연주회 만추

일 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5회 정기연주회 ‘만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2014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가을’,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봄’, ‘여름’,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조진주는 비평가들로부터 ‘강렬하고 매력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연주가’라고 극찬 받은 바 있다.

**문화운곽과 함께하는 가을 힐링콘서트
‘Ein klingen’ 소리에 물들다**

일 시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2·3층 2만원
문의 문화운곽 010-7573-3555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과 국악의 깊은 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힐링콘서트 ‘Ein klingen, 소리에 물들다’. 이번 무대에서는 밀라노라 스칼라극장에서 오페라 ‘맥베드’로 한국인 테너 최초 주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테너 이정원과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주역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오미선,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이성준, 나리밴드 대표로 있는 해금연주자 나리, 난타 예규, 남성중창 레이, 현악양상블 콘소노 등이 출연,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명인 ‘Ein klingen’은 독일어로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

- 사회/피아니스트 김병기

오페라 ‘굴뚝 청소부’

일 시 11월 16일-17일 금-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의 KSH Art 010-4874-7068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등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던 영국의 작곡가 브리튼이 어린이들을 위해 작곡한 교육용 오페라 ‘굴뚝 청소부’. 지난 1949년 런던에서 초연된 후 꾸준히 무대에 올려진 ‘굴뚝 청소부’는 브리튼의 오페라 ‘오페라를 만들자!(Let’s Make an Opera!)’ 중 2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2부의 오페라 ‘굴뚝 청소부’를 만드는 준비과정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1부 상연없이 오페라만 소개한다. 특히 공연 3일째인 18일에는 ‘제1회 부산국제오페라콩쿨 축하연주회’를 겸한 무대로, 콩쿨 수상자들이 출연, 오페라 ‘굴뚝 청소부’를 선보인다.

- 총 예술감독/안민
- 예술감독/Stelia Doz, Antonino Tagliareni
- 음악감독/홍지혜
- 지휘/권영기 ● 연출/노연정
- 출연/윤오건, 이창원, 성미진, 강은지, 유&오 라가찌 어린이

소프라노 황신영 독창회

일 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황신영 010-3855-4244



그동안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1등, 이탈리아 사르차나 국제콩쿠르 1등, 프랑스 아를로 국제콩쿠르 1등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소프라노 황신영 독창회. 한양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및 프랑스 마르세유 오페라 스튜디오를 졸업한 황신영은 스위스 아카데미극장, 프랑스 마르세유극장 솔리스트로서 활동하며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외 가곡 및 성가곡으로 꾸며지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안준희

위은정 귀국 피아노독주회

일 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풍부한 음악성을 기반으로 섬세한 테크닉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위은정 귀국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17세에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 최연소 합격 후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위은정은 일찍이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부산예술중학교 재학 당시 부산시 예술 영재에 발탁되어 연주와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위은정은 유학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 체코, 헝가리, 독일 등 유럽전역에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기량을 쌓아왔으며, 쇼팽의 음악을 사랑해 쇼팽 왈츠 전곡을 CD로 녹음한 바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2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부산청소년합창제 2018년 무대. 올해로 32회를 맞는 부산청소년합창제는 그동안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감성을 함창을 통해 표현하면서 개개인의 감성과 음악성, 함창에서만 가능한 사회성, 책임감 등을 배우며 청소년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청소년합창단 11개팀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클래식 곡으로 순수 음악의 하모니와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연합무대를 통해 참가 합창단이 함창으로 화합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가단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반주/이영옥)
 기장금샘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김옥희)
 남문합창단(지휘/이현성, 반주/박은하)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지휘/홍지형, 반주/박솔희)
 부전초등학교합창단(지휘/고희영, 반주/손미진)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엄현섭, 반주/이은혜)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태경)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지민, 반주/정유주)
 연지꿈나무합창단(지휘/김우영, 반주/이민화)
 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윤희, 반주/도미혜)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민지, 반주/박지환)
 KBS부산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반주/오은영)



부산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업경대(业镜台)

일 시 11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49일간의 생사관을 제의적 형식 속에 응축시킨 부산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업경대'. 지난 2016년 김용철 예술감독 취임 첫 정기공연을 통해 한국창작무용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은 '업경대'는 이듬해인 2017년 제21회 PAF 예술상에서 '베스트 춤 레퍼토리상'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작품

1장_거울이 부르는 노래 / 2장_영혼의 습지
 3장_욕망의 무게 / 4장_지워진 자를 위한 난장
 ● 안무/김용철(예술감독)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일 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한국과 중국, 몽골 등 세 나라 각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 올해로 세 번째로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 해금 연주자 김철, 마구금 연주자 에르데네바타르 명크바야르, 통소 연주자 최민과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한국 등 아시아의 젊은 전통음악인들로 구성된 창작레지던시 '2018 아시아소프프로젝트'가 출연, 각각의 다양한 협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부산문화회관

제1209회 MBC목요음악회
발달장애인 앙상블 더날개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일 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영남 최초의 발달장애인 앙상블팀인 '더날개'와 함께하는 제1209회 MBC목요음악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전문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단된 발달장애인

앙상블 '더날개'는 지난 2016년 1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부산대학병원 '찾아가는 희망나눔 음악회', 부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주년 초청연주, 동의대학교 현악앙상블 with 더날개 앙상블, 더날개와 부산 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날개를 펴다', 성모병원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음악감독/백재진
- 지휘/손호상
- 반주/김보은

제1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일 시 11월 23일(금)-25일(일) 중극장, 전시실, 중앙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tea.kr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1월 23일 중극장에서 개막식으로 열리는 차행법 숙우회 회장인 강수길 선생의 '지금 여기에서 우리차를 묻다' 주제강연과 '해선(海漩) 말차시연'을 시작으로 전시실에서는 아름다운 고려시대 차를 만나다, 가야에서 탐라까지 우리차를 찾아서, 그림으로 빛은 다완전, 도공5인의 삼매를 담다, 한-중 골동 향함 전시 및 문화체험, 선고다인 추모전 등 다채로운 전시, 중앙광장에서는 전통국악 및 무용공연이 펼쳐진다.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음악회
슈베르티아데 : 죽음도 막지못한
음악에 대한 열정

일 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윤예술기획 010-9025-2012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죽음도 막지못한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두 번째 무대.

플루티스트 김윤희, 클라리넷 김기민, 첼리스트 심어라, 김나래, 바이올리니스트 안은지, 정다희가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서도 편성이 다른 두 개의 콰르텟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플루트와 기타, 비올라, 첼로를 위한 플루트 4중주 사장조 D.96
슈베르트/현악4중주 제14 '죽음과 소녀' D.81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엄유민법 전국투어콘서트-부산

일 시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삼총사'로 호흡을 맞춘 배우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가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콘서트 '엄유민법' 부산콘서트.

'엄유민법'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엄기준, 볼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카리스마 유준상, 감미로운 목소리로 뮤지컬계의 고막남친으로 등극한 배우 민영기, 저음보이스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배우 김법래 등 네 배우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만든 이름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뮤지컬 넘버와 가요, 팝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솔직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홍선화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탁월한 테크닉과 따뜻한 음악적인 감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홍선화 귀국 독주회.

울산대학교 재학 중 도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과 펠체이스 대학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홍선화는 카와이 시게루 시리즈 초청 독주회를 비롯해 뉴욕에서 수회의 독주회를 가졌으며 카네기홀, 뉴욕 스타타워이홀, 링컨센터, Tilles Center, The National Opera Center, New York-Presbyterian/Queens Hospital, Frank and Camilles Recital Hall, Dublin City Gallery 등에서 연주한 바 있다. 홍선화는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울산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부산가톨릭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가톨릭합창단 010-8509-0046



1982년 3월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시편 88,1)'를 모토로 부산교구 소속 직속합창단으로 출발한 부산가톨릭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스의 '진혼미사곡 작품 54'를 비롯해 성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성훈
- 반주/미아, 이효진
- 솔로/소프라노 윤지영, 알토 강연희, 테너 양승엽, 바리톤 이태영

**부산여자대학교 무용전공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춤-나래를 달다**

일 시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850-3261



부산여자대학교 무용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화합과 소통의 무대 '춤-나래를 달다'. 한국춤, 발레, 현대무용 등 순수무용 작품을 선보이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벨리댄스, 스트릿댄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실용무용 작품을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선보임으로써 근래 보기 드문 사제기간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

- 예술감독/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학과장)
- 출연교수/김해성, 김옥련, 김한동, 김선영, 서덕구, 김민지, 이연주
- 특별출연/이성훈(동래학춤 예능보유자), 부산민속 예술보존회 악사

금성하모니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금성하모니 010-3588-2611



금성고등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남성합창단 금성하모니의 4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깊은 울림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합창음악을 선사해온 금성하모니는 이번 무대에서 깊어가는 가을밤을 맞아 서정적인 우리가곡과 가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손욱 ● 반주/김주리
- 특별출연/테너 허동권, 양승영, 바리톤 한정현, 베이스 김일석

제54회 부산예술가곡연주회

일 시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예술가곡 010-3884-4623



조신미 대표와 함께 하는 성악 아카데미의 성인 클래스를 중심으로 노래수업을 하며 전공자와 동호회 회원들이 매달 발표회를 가져오고 있는 부산예술가곡의 무대.

지난 2014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부산예술가곡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에체르여성합창단, 노블남성중창단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독창/소프라노 조신미, 테너 신재철 외 15명

**온다도르 성악아카데미 연주회
Ten Tenors**

일 시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온다도르 성악아카데미 010-5535-5026



감독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베르디/오페라 '돈 카를로' 중 '나의 여인을 잃었네'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것이냐 저것이냐'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오묘한 조화' 등 수록
- 소프라노/변향숙 ● 반주/진승민

**2018 부산오페라 WEEK
온누리오페라단과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함께
하는 Opera in Concert '나부코'**

일 시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온누리오페라단 990-2231, 010-3839-1084



온누리오페라단과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함께하는 오페라 인 콘서트 '나부코'. 성서에 등장하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이야기를 각색한 '나부코'는 바빌론의 왕 나부코와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의 두 딸이 펼치는 야망과 복수, 사랑과 용서를 그린 베르디 최고의 걸작 오페라이다.

- 예술총감독/이홍길 ● 연출/김성경
- 지휘/성상철
- 출연/안세범, 이선미, 양재원, 정은미, 이창원, 이준우, 박용선, 김경미
- 연주/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 합창/고신대학교 음악과 합창단, 부산오페라양상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III**

일 시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 한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총 세차례 진행되는 이번 시즌 4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해설로 오페라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018년 마티네콘서트의 마지막 주인공은 푸치니와 조르다노.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바리톤 나현규의 협연으로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와 조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를 주요 아리아를 통해 소개한다.

제6회 양태순의 춤

일 시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양태순예술원 010-9060-8623, 010-8916-2677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이자 제97호 살풀이 전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이어온 양태순의 춤. 10살의 나이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2018 부산오페라 WEEK
솔오페라단 Grand Opera Gala Concert 'The Big Night'

일 시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15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솔오페라단 1544-9373



작곡가 도니체티, 베르디, 푸치니의 대표 오페라인 '루치아 디 라메르무어',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갈라 공연으로...

- 예술총감독/이소영
예술감독/Dino DE Palma, 김영미
지휘/서희태
출연/Gilda Fiume, Sergio Escobar, 신정순, 박현정, 김지호, 조윤희, 박대용, 조현수, 이태영, 권영기 외
연주/울웨이코리아오케스트라

김문영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김문영 463-3927, 010-4033-8708



섬세한 표현으로 깊이있는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김문영 피아노 리사이틀.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Cello, to be with you

일 시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힘찬 음색, 완벽한 기교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낭만적인 첼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명진 교수와 화음을 맞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올리버 케른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조용한 숲'을 시작으로...

- 피아노/올리버 케른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The Great composers '3B'

일 시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조혜운 010-5508-8552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3B'가 남긴 명곡들로 꾸미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메네스음대 석사과정과...

- 피아노/신지아

2018 부산오페라 WEEK
뉴아시아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12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4만원
문의 뉴아시아오페라단 1600-6867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라는 명예와 함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그레이스 조
연출/엄숙정
지휘/실바노 코르시
출연/박은주, 박현진, 강훈, 이장원, 김기환, 석상근, 김민지, 이광진, 김정대, 박순기, 김민진, 박상진 외
연주/부산로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창/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메트로페라합창단
무용/뉴아시아무용단

부산시민회관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22주년 기념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마련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예선을 통과한 전국 중·고교 합창단 5개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 1개팀을 비롯해 금상 1개팀, 은상 1개팀, 동상 2개팀을 선정, 시상한다.

참가학교

곡정고등학교 '라일라스', 금정중학교 '금정소파이어'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합창단,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합창단, 한스소파이어

제20회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러시아로부터 차이콥스키와 함께

일 시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6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소속으로,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교문 청소년오케스트라의 20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시대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의 작품으로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백조의 호수’ 중 ‘왈츠’
차이콥스키/바이올린협주곡 작품 35 3악장
차이콥스키/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 지휘/김봉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팝스앙상블의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일 시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지난 1980~90년대 대중적인 팝, 가요 연주를 통해 관객들을 그 때 그 시절로 이끄는 ‘부산팝스앙상블의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동부산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있는 백원석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팝스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아코디언 연주가 박상민, 정통 재즈를 고수하는 김주환 밴드, 그리고 보컬 시릴리아 로페즈의 화려한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 밤 관객들을 즐거운 음악여행으로 초대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일 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지난해 11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레미제라블’은 땀 한 조각을 흘린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장 발장’의 이야기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혁명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그리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레미제라블’의 주옥같은 넘버를 선정, 오케스트라 반주와 합창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 특별출연/배우 박찬영

부산 YWCA 창립 72주년 기념콘서트 장미여관 부산콘서트

일 시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문 의 부산YWCA 441-2221, 2225



올해로 창립72주년을 맞은 부산 YWCA가 그동안 함께 해온 후원자와 부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기념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12년 TV 방영된 ‘서바이벌 탭밴드2’에서 자작곡 ‘봉숙이’로 대중들 앞에 나와 솔직하고 꾸밈없는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5인조 록밴드 ‘장미여관’의 무대로 꾸며진다. 보컬&기타 강준우와 육중완을 주축으로 배상재(기타), 윤장현(베이스), 임경섭(드럼)으로 구성된 장미여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을 소재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유쾌함과 감동코드,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소화해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밴드로 자리매김했다.

주현미와 오케스트라의 ‘Serenade’-부산

일 시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신사동 그사람, 짝사랑, 비 내리는 영동교, 잠깐만, 또 만났네요 등 수많은 히트곡들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데뷔 35년 차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주현미와 50인조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콜라보레이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주현미의 히트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지휘/류성규
● 연주/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2018 MiOT 제21회 정기연주회
우리 이곳에 II

일 시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MiOT 701-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우리시대음악)의 21번째 무대. 지난해에 이어 '우리 이곳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무대로, 서양음악 600여년의 발달선상에서

바라본 오늘의 음악을 이해하는 자리로, 바로크 시대(1600~1750)에 초점을 두어 우리시대를 바라본다. 바로크의 상징적인 작곡가 바흐(1685~1750)와 20세기 구조론 작곡가 A. 슈니트케(1934~1998)의 콘체르토 그로소(합주협주곡)를 나란히 연주하며, 부산의 젊은 작곡가 박주희, 임지훈의 곡을 들려준다.

- 연주/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지휘/박성완)

토리오카리나양상블 네 번째 이야기
You Are My Love Song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토리오카리나 010-4858-0216

수년간의 연주활동과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을 쌓아온 연주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자 지난 2015년 창단한 토리오카리나양상블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작지만 단단하고 아무지다'라는 순우리말 '토리'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토리오카리나양상블은 시민과 함께 하는 토리오카리나양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토리오카리나양상블 창단연주회, 설날맛이 노인전문제3병원 봉사연주회, 제26회 새우리음악회, 송상현광장 시민을 위한 오카리나 산책, 부산시 기약생활문화연합예술제, 해운대구 생활문화예술제, 영도강강이마음축제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오카리나 선율의 매력을 선사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

- 연주/정봉양(감독), 정지영, 이경숙, 강수악, 배명화, 남영애
- 스페셜 게스트/기타리스트 홍광현, 양정초등학교 고운소리합창단

제5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무료
문의 강학윤 010-9287-6350



지난 2011년 개설된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정기 연주회. 노래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도교수/강학윤
- 반주/주은정
- 소프라노/박성애, 김정자, 김순희, 박순희, 박혜정, 이명희, 서장희, 김성미, 전영희, 김보경
- 테너/박상천, 양수배
- 바리톤/박인재

제29회 부산한새리코더교육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한새리코더교육연구회 010-3393-9334



지난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리코더 연주,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교육연구회 정기연주회. 리코더 연주를 통해 서양

음악사의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시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후 20세기에 다시 부활한 리코더 합주의 매력을 다양한 연주곡으로 소개한다.

- 회장/윤희경
- 음악감독/이창욱
- 객원지휘/박경리
- 찬조출연/정수애(머니합창단)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더하기 공모사업
연극으로 해설해주는
'라 트라비아타'

일 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8일 수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재)영화의전당 780-6000



갑갑한 격식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과 웃음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신분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 죽음을 맞는 비올레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베르디 오페라를 각색한 '라 트라비아타'

는 비올레타의 유품을 경매하는 현장에 경매가를 높이기 위한 의문의 남자가 등장하고, 비올레타의 삶이 비극으로 치달을 때마다 경매가는 높아져 가고 참가자들은 남자가 들려주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에 점점 빠져든다.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연주회 시리즈
슈베르트의 밤(슈베르티아데)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일 시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연주회 시리즈 네 번째 무대. 풍부한 성량과 세련된 표현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바리톤 박병인이 슈베르트 3대 연가곡 중 하나인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를 들려준다.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Solisten KI 최고연주자과정을 이수한 박병인은 독일 브레멘 극장, 오스트리아 Graz Oper 주역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마닐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이진혜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플루트와 기타 듀오'

매년 색다른 주제와 테마로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함께 플루트와 클래식기타가 어우러지는 서정적인 듀오무대를 선사한다.

14일 최수는 피아노 독주회

치밀한 음악적 해석과 탄탄하고 섬세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수는 독주회. 최수는 현재 한국피아노듀오협회 회원, Balle Voix Piano Trio 멤버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소프라노 박성애 팔순독창회

일 시 11월 9일 금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박성애 010-3762-1617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을 통해 음악수업을 받은 소프라노 박성애의 팔순 기념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지도교수인 테너 강학윤과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수강생들로 구성된 멜로스 여성앙상블이 함께 출연,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주은정
- 특별출연/테너 강학윤, 알렉스 김
- 우정출연/멜로스 여성앙상블



21일 바이올린 콘체르토 '사계'

비발디 '사계'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사계'. 부산콘서트필하모니오케스트라,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울산북구오케스트라, 울웨이코리아오케스트라 악장, 트리오 피아체 멤버, (사)더솔로이스츠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의 협연으로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앙상블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바이올린/김가람, 이지은, 이상엽, 한유진
● 비올라/이재경, 신요한
● 첼로/이강수, 윤성민 ● 해설/장진규

28일 신승민 플루트 독주회 '익숙하지만 낯선 1'

진심을 담은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는 플루티스트 신승민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목관악기 최초 1년 조기졸업한 후 현재 동대학 예술전문사과정에 재학중인 신승민은 아라온목관5중주 멤버로 활동하며 참신하고 새로운 플루트음악의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하프/김영립 ● 피아노/윤효린

우리산천 민요따라 희망따라

일 시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사)한국서도민요연구보존회 010-3550-4189



부산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서도소리 및 경기민요의 전승, 보급에 앞장서온 (사)한국서도민요연구보존회 하인철 이사장과 회원들이 마련하는 신명나는 우리민요 한마당. 하인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 이수자로 있으며 제39회 전국국악민요경창대회 명창부 금상, 제22회 대국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민요부 대상, 제19회 전국 경서도경창대회 명창부 대상, 제1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 지역에 전해오는 민요를 따라 소리여행을 떠난다.

The 3rd T.M.C Regular Concert 클래식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힐링 여행

일 시 11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T.M.C 010-7139-3832



피아니스트 신정운,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클라리네티스트 곽웅식으로 구성된 T.M.C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하나된다는 의미의 'The Music Circle'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T.M.C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제와 문화와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며 관객들에게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오고 있다. 매 연주회마다 주제에 맞는 게스트들과 무대에 서고 있는 T.M.C는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양라운, 피아니스트 조혜영과 함께 작곡가 드뷔시, 브람스, 푸치니, 마누엘 델 피야의 곡으로 유럽으로 클래식 음악여행을 떠난다.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시대악기와 함께하는 바로크 음악의 밤

일 시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사전예약 필수)
문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010-3586-1938



바로크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합창곡을 연주하는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의 무대. '여행(Le Voyage)'이라는 뜻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은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2013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으며, 2015년에는 제31회 일본 다카라즈카 국제챔버합창콩쿠르, 부산 국제합창콩쿠르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리더 김지영)과 함께 한국초연무대로 오르는 장 밥티스트 웰리의 '진노의 날'을 비롯해 바로크시대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이성훈 ● 해설/장원

기타공연장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4: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562-6561



지난 2000년 창단 후 리코더 음악의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이정숙)의 19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텔레만 등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리코더를 위한 협주곡에서부터 집시무곡, 네덜란드 민속곡, 오페라 아리아, 칸타타, 창작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강희숙
- 해금/조위현
- 거문고/신아진
- 챔발로/손보현
- 가야금/이초희
- 첼로/이재성
- 타악/최원택

트리오 레자미(Trio Les Amis)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전주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김근혜,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으로 구성된 트리오 레자미의 무대. '소중한 친구들(Amis)'이라는 프랑스어에서 가져온 트리오 레자미(Trio Les Amis)는 서로 다른 악기 구성이지만 음악적 열정을 모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음악을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담아 2016년 결성된 연주단체로, 그 해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 연주회마다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대를 선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포레스텔라 콘서트 '숲, 그리고 별' in Busan

일 시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TV 예능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시즌 2에서 우승한 크로스오버 사중창그룹인 포레스텔라 콘서트 '숲, 그리고 별'. 뮤지컬 배우 배두훈, 화학 연구원 출신 강형호, 광풍 테너 성악가 조민규, 성악 전공 대학생 고우림으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지난해 '팬텀싱어2' 최종회에서 우승한 후 올해 3월 앨범 'Evolution'으로 정식 데뷔했다. 특히 포레스텔라는 훈훈한 외모와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그룹으로 다수의 팬덤을 확보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연주회 시리즈 V 슈베르트의 밤(슈베르티아데) -Grand Duo의 밤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연주회 시리즈 마지막 무대 '그랜드 듀오의 밤'.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인 박정희와 권준이 함께하는 무대로,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슈베르트의 한 대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 내림장조조 D 603', '판타지 바단조 D 940', '소나타 다장조 D 812'를 감상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 조교수로 있는 박정희는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뿜어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준은 부산트리오 멤버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별 헤는 밤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양종근 010-8009-2509



중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사해온 베이스바리톤 양종근 독창회. 고신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로마 국제아카데미, 노르마 일세미나리오 시립아카데미, 테라모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양종근은 그동안 볼륨있는 풍부한 소리로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 출연, 오페라 가수로서의 뛰어난 연기력과 역량을 선보였다. 양종근은 현재 솔라첼로 성악연구회 부대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전문 오페라가수와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피아노/김란
- 소프라노/김현주
- 아코디언/오영진
- 사하/오세민

정아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정아름 010-9817-2898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과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최고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정아름 독주회. 정아름은 대구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쇼팽 등 늦가를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1번
쇼팽/발라드 제3·4번 등 수곡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당신의 미각을 일깨우는 화요 마티네 미식회**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11월 무대에서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줄리 앤줄리아', '더 셰프' 등 영화 속 등장하는 음식과 디저트 그리고 차(茶)에 대해 살펴보는 미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부산의 음식과 먹거리를 비롯한 음식에 대한 다양한 수다가 펼쳐진다.

- 진행/푸디토리움 김정범
- 연주/IPB(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 김지윤, 비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 양옥진)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최민경 010-9496-2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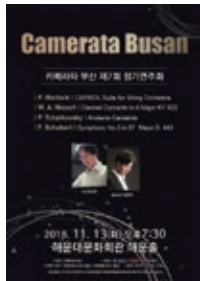


Raon Piano Society 대표이자 작곡그룹 Anti-Stimmung 연주이사, 한국피아노학회,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Music Post-graduate 및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한 최민경은 로렌조 페로지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등에서 독주회 및 초청연주회를 가졌다.

제7회 카메라타 부산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사전 예매자 40% 할인)
문의 카메라타부산 010-7535-5369



지난 2012년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과 악장 김희정을 비롯해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 20여명으로 결성된 카메라타 부산의 7번째 정기연주회.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작품들 중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택해 소개하고 있는 카메라타 부산은 앞으로 창작음악뿐 아니라 성악 등 장르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가곡 작곡가로 평가받는 피터 워락의 6개의 무곡형식으로 구성된 '카프리울 모음곡'을 비롯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슈베르트의 곡을 들려준다.

-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

**양상블 클라비어 피아니즘 with
팝핀현준, 박애리-부산**

일 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층
입장료 1만5천원, 2층 1만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클래식을 모토로 2014년 결성된 남성 피아니스트 4인조 '양상블 클라비어'와 소리꾼 박애리, 가수 팝핀현준 부부와 함께 펼치는 특별한 무대. 피아니스트 방기수, 신상일, 신영주, 이선호로 구성된 양상블 클라비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와 볼로냐 초청공연에 이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현지 매체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유클래식 예술감독 겸 대표로, 매년 100회 이상 음악회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콘서트가이드 김이곤의 진행으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클래식을 모토로 2014년 결성된 남성 피아니스트 4인조 '양상블 클라비어'와 소리꾼 박애리, 가수 팝핀현준 부부와 함께 펼치는 특별한 무대. 피아니스트 방기수, 신상일, 신영주, 이선호로 구성된 양상블 클라비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와 볼로냐 초청공연에 이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현지 매체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유클래식 예술감독 겸 대표로, 매년 100회 이상 음악회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콘서트가이드 김이곤의 진행으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55회 정기연주회
10번째 아듀 클라리넷 독주회_홍성택**

일 시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10-2323-6589, 010-3838-4291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고 있는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느리게! 그러나 곧게...' 최고수준의 음악을 창조하는 높은 이상을 꿈꾼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홍성택의 독주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연주를 들려준다.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홍성택의 독주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연주를 들려준다.

**2018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198-0074



부산의 유일한 기타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의 1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2년 전문연주자와 전공자, 애호가들로 결성된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전국의 유명 클래식 기타 연주자를 초청, 부산기타페스티벌을 가져오고 있다.

2중주, 3중주, 솔로로 진행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상임지휘자 김경태와 부지휘자 김현아의 지휘로 합주무대가 펼쳐진다.

기타공연장

음악풍경 창립 5주년 기념콘서트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일 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987-5005



2013년 11월 창립된 후 연주자와 관객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온 음악풍경 창립 5주년 기념콘서트. 음악풍경의 전속악단인 '프로무지카부산'이 펼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부산에서 만들어진, 부산을 배경으로 널리 불린 노래들로 꾸며지는 제1부 '피란수도 부산의 노래'에 이어 제2부 '해양수도 부산, 바다의 노래'에서는 해양도시 부산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곡을 들려준다.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프롬나드 콘서트 '가을의 추억
Autumn's Memory'

일 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11월 무대. '가을의 추억'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의 협연으로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제6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국향만리 國香萬里

일 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악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리꾼이자 배우로 활동중인 오정해의 사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절이 지휘하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 연주,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고토 연주자 가타오카 리사, 플루트리스 김영의 협연으로 창작국악관현악에서부터 국악가요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고토를 위한 국악관현악 '초소의 봄', 국악관현악 '말발굽소리', 플루트와 국악관현악 'Sound of Peace' 등 수곡

연극 | Play

오일 비즈콰이어 제2회 발표회

일 시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오일 비즈콰이어 010-8542-2383

지난 1975년 졸업한 동래고등학교 제51회 동기생 21명으로 구성된 오일 비즈콰이어의 두 번째 정기공연. 오일 비즈콰이어는 지난 2014년 2월 창단한 후 그동안 제1회 발표회와 고교 졸업 40주년 행사 합창공연에 서왔다. 벨라온 남성합창단, 흥번사 불광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성심병원 지휘자로 있는 최성혁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평균나이 63세인 단원들이 인생을 소재로 한 노래를 선곡, 합창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친구이야기, 동백섬, 밀려오는 파도소리, 인생, 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정의 노래, 흥겨운 인생, 사랑의 트위스트
● 지휘/최성혁
● 피아노/고영주

연극 택시안에서

일 시 1월 5일(금)-11월 30일(금)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느긋해도 너무 느긋한 택시기사 민수의 운전 실력, 과연, 하영은 제 시간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9월 14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8년 초연 후 서울 대학로의 오프런 공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민연극'이라는 칭호를 얻은 영국 극작가 레이 쿨리의 '라이어'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는 택시를 타고가던 중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가방을 바꿔두고 만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100억원 상당의 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영호는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옆친데 덮친 격으로 영호를 의심하는 형사들로 인해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며 영호를 압박하는데...

연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일 시 9월 20일(목)-2019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지난 2011년 초연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연극 '작전! 임이라 지우기(웨딩브레이커)'의 리뉴얼 버전인 '수상한 흥신소 3탄'은 자신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과거로 온 17세 소녀 임이랑

이 벌이는 요절복통 엄마, 아빠의 연애 웨빙 대작전을 그린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극으로, 그동안 탄탄한 스토리와 믿고보는 배우들의 연기로 누적 관객 50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극단 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모음

일 시 11월 1일(목)-24일(토), 12월 6일(목)-22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세상에 대한 풍자와 역설, 은유와 직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짝한 일상이 담긴 4편의 단막극을 선보이는 극단 새벽의 '단막극 레퍼토리 모음'.

국가권력의 폭력적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려낸 '야인 밤중예(작/이성민, 출연/변현주, 이현식, 정선욱)'를 비롯해 '다리 위에서(작/서현철, 출연/이현식, 정범진)', '회사 생활(작/정선욱, 출연/변현주, 정선욱, 오욱진)', '비오는 날의 선술집(작/이성민, 출연/변현주, 이현식, 정범진, 정선욱/오욱진)' 등 4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2018 부산가을연극페스티벌

일 시 11월 2일(금)-25일(일) 극장 6번출구, 엑터스 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열린아트홀, 청춘나비아트홀, 한결아트홀, 레몬트리소극장

입장료 패키지 티켓 6만원(5개 공연), 8만원(7개 공연)

문의 부산소극장연극협회 010-2111-3873, 010-9662-2019



부산광역시와 부산소극장연극협회가 마련하는 2018년 부산가을연극페스티벌.

올해 무대에서는 7개 참가작 외에도 가족극 우수작 초청공연으로 2015 김천국제연극제 은상을 수상한 '시르릉뽀쪽 할라뽀'를 만날 수 있다.

극단 맥 마당놀이 '놀부가 왔다'[개막작]

2일(금)-14일(수) 평일·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00, 7:30(9일-12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출구 매력 넘치는 현대판 놀부전으로,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 음악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는 소극장 연극 마당놀이 '놀부가 왔다'.

- 작/심미란 ●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박우희, 이석용, 지연실, 이태규 외
- 입장료/전석 2만5천원(예매시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문의/극단 맥 010-5232-1350

부두연극단 '아니! 왜 이러세요?'

2일(금)-1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엑터스 소극장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ME TOO' 사건을 연상케 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면서 세대간의 단절과 인간관계의 소통부재 문제를 다룬 작품.

- 작/데이비드 메트 ● 번역/김지나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박성호, 이설
- 입장료/일반 2만원, 학생 1만5천원
(예매시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2천원)
문의/부두연극단 611-6616

극단 약자지킴 '호랑이아줌마'

6일(화)-24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아트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극작가 다리오 포의 'A tale of tiger'를 원작으로, 중견배우 권철의 1인극으로 선보이는 '호랑이 아줌마'.

- 작/다리오 포 ● 각색/이철우
 - 연출/권철
- 입장료/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전화 예매시 30% 할인)
문의/극단 약자지킴 527-0123

프로젝트그룹 배우다 '안톤 체홉의 결혼소동극'

7일(수)-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17일 토요일 오후 7: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사랑에 관한 우스꽝스럽고도 신비한 체험이 녹아있는 안톤 체홉의 '청혼', '꿈'을 무대에 올린 작품.

- 각색, 연출/우여진 ● 번역/정진수
 - 출연/천서기, 안윤철, 박정우, 권혜원, 김하영 외
- 입장료/전석 2만5천원
문의/프로젝트그룹 배우다 504-2544

극단 네이호우 '밤과낮:경계의 시간들'

8일(목)-1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우연한 '사건'에서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세명의 에피소드를 통해 꿈과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 작, 연출/차승호
 - 출연/김인하, 김미미, 윤장원, 이현, 성주원 외
- 입장료/전석 2만원
문의/극단 네이호우 070-8241-2560, 010-3198-2090



극단 아센 '영순아 어디가니?'

9일(금)-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하늘바람소극장 만성자 살종독자 영순의 비극적 삶을 그린 작품으로, 배우 구민주가 나이와 성별을 초월, 8명의 등장인물을 숨가쁘게 표현해 낸다.

- 작/이훈주 ● 재구성, 연출/호민
- 입장료/전석 2만5천원
문의/극단 아센 504-2544, 070-8807-2544



극단 노마드 '마지막 바캉스'[폐막작]

11월 9일(금)-12월 2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월·수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소극장 불현듯 찾아온 마술 같은 사랑에 이끌려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영원한 바캉스를 떠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마지막 바캉스'.

- 작/진지숙 ● 연출/이성섭
 - 출연/박규남, 김재윤
- 입장료/전석 3만원(학생 2만원, 온라인예매 1만5천원)
문의/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010-5721-0465

가족극 우수작 초청공연 '시르릉뽀쪽 할라뽀'

21일(수)-24일(토) 평일 오전 10:00, 11:00, 토요일 오후 2:00 한결아트홀 무대 위 배우들이 인형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들려주는 옛이야기.
문의/부산소극장연극협회 010-2111-3873, 010-9662-2019

기타공연장

2018년 구·군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뮤지컬 ‘복순이할배’

일 시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지난 2012년 초연무대 후 시즌 11을 거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를 간다. 태수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일 시 12월 4일(화)~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전석 2만5천원(예매시 1만5천원)
문 의 극단 자유바다 010-3577-3092



박도사는 영도다리 아래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주역쟁이다. 30여년 전 스승장도사 밑에서 주역공부에 매진하던 박도사는 당시 부산 최고의 부잣집 딸 효주양 납치사건이 일어나고 그의 조언으로 효주양이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박도사는 스승인 장도사와 충돌하고 운명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박도사와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장도사의 갈등은 심해지는데... 부산을 스토리텔링한 연극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각자 다른 태도로 맞서는 족집게 박도사와 그의 스승 장도사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 작, 연출/정경환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일 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주)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1644-4146



깍쟁이 딸 미영과 딸을 낳은 것이 세상 살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다는 친정엄마가 시한부 미영의 죽음을 앞두고 보내게 되는 가슴 뭉클한 2박3일을 그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지난 2009년 1월 초연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그동안 미국 LA, 뉴욕을 포함 국내외 700회 이상 공연, 누적관객 62만 명을 돌파하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0년간 다져온 호흡으로 깊은 울림을 끌어내는 배우 강부자, 전미선이 가슴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무용 | Dance

2018 Busan Brand Contents
Turn Toward Busan

일 시 11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세계 유일의 UN군 전사자가 묻힌 부산 UN기념공원을 소재로 ‘전쟁과 평화’의 비망록을 담은 정신헌무용단의 신개념 창작 공연 ‘Turn Toward Busan’. ‘세련된 몸짓 전쟁의 상흔 어루만진다’, ‘부산이 세계인에게 보내는 생명과 평화의 몸짓’ 등 지난해 초연 무대를 통해 많은 호평을 받았던 ‘Turn Toward Busan’은 남녀무용수의 춤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노래, 창작음악, 특수 무대와 특수 영상 및 조명, 홀로그래프 등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새로운 기법의 대형 댄스컬 공연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아트레볼루션 창작극
‘아빠 집, 반송’

일 시 11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아트레볼루션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극 ‘아빠 집, 반송’. 그동안 다른 지역과는 다른, 부산만의 색깔을 지닌 ‘메이드 인 부산’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아트레볼루션은 이번 무대에선 해운대구 반송동을 배경으로, 두 부녀의 갈등과 사랑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낸다.

● 작/박정우, 김정환
● 연출/박정우, 채민수
● 출연/박찬영, 이태경, 박호천, 최현정, 이대희, 박준성, 채민수, 이혜진, 김예진, 김은형, 박문현, 권상우

김옥련발레단 창작발레컬·가족극
후리아후리아, 윤희신 찾기

일 시 11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1:00(단체관람),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단체 20인 이상 7천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김옥련발레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발레컬 ‘후리아후리아, 윤희신 찾기’. 지난 1995년 창단한 김옥련발레단은 21C 발레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과 레퍼토리 확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발레단체로, 창단 이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창작발레컬 ‘후리아후리아, 윤희신 찾기’는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다대포를 지켰던 다대침사 윤희신 장군과 그의 동생 흥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지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영화 | Movie

금정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영상으로 만나는 디토 파라다이스

일 시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전화예약 필수)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공연영상을 즐기고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디토 파라다이스'.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인 '디토 파라다이스'는 지난 2007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양상블 디토'에서 2009년 '디토 페스티벌'로 발전한 클래식 콘서트로, 지난 10년간 '디토'를 거쳐간 역대 멤버들이 출연해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시네바움 아트홀바움
11월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3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5일(월) 일본의 미학(12)
홍과 오카시(おかし) 미학의 동상이몽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6일(화) 셰익스피어 읽기(5)
메멘토리, 왜상화법(Anamorphosis), '햄릿' Act 5 Scene 1, "묘지 장면의 풍광과 문장(紋章, Coat of Arms)의 희극적 기원"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외래교수)

12일(월) 윤산의 고전읽기(4) '맹자철학, 이것이다'
● 강사/김수청(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3일(화) 음악으로 보는 영화(1)
영화음악의 새로운 힘

콘서트 | Concert

2018 레이첼 야마가타 내한공연
-부산-

일 시 11월 6일-7일 화-수요일 오후 8:0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수록된 '섬씽인 더 레인(Something In The Rain)'으로 국내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 부산공연.

지난 2003년 EP 앨범 'EP'로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에서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 선정된 레이첼 야마가타는 그동안 4장의 정규 앨범을 비롯해 각종 OST 음악으로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아왔으며, 지난 2009년 첫 내한공연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꾸준히 한국을 찾아 탁월한 라이브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연이은 공연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트로 선정된 레이첼 야마가타는 그동안 4장의 정규 앨범을 비롯해 각종 OST 음악으로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아왔으며, 지난 2009년 첫 내한공연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꾸준히 한국을 찾아 탁월한 라이브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연이은 공연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 강사/독고훈(동아대학교 교수, Grow4Music 대표)

19일(월)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3)
영화, 바스키아를 통해 본 '검은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의 삶과 예술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20일(화) 시네페미니즘(2)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보는 장르영화

● 강사/주유신(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26일(월)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한자의 문화성

● 강사/하영삼(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국한자연구소 소장)

27일(화) 가야사를 찾아서(3)
고구려의 남정(南征)과 가야의 재편

● 강사/유우창(부산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부경역사연구소 고대사연구부장)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채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채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6일(677회) 브람스와 실내악 1

13일(678회) 브람스와 실내악 2

20일(679회) 브람스와 실내악 3

27일(680회) 이달의 책읽기/브람스 평전 1부(이성일 지음, 풍월당, 2017년)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2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부산 MBC FM '목요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 클래식음악해설가가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회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품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 '바순협주곡', '만돌린협주곡'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제1번', 헨델 '수상음악'
생상 '첼로협주곡', 쇼팽 '녹턴', '마주르카'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기타공연장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13일(화), 14일(수), 16일(금), 26일(월)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3일(화) 오후 7:30 곡근수의 맛있는 클래식제35강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생애와 음악 II' 19세기 오페라의 전통을 꽃피운 최후의 대작곡가 푸치니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알아보는 두 번째 강좌. 1924년, 푸치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만큼 청중을 열광시키는 능력을 가진 작곡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푸치니는 몬테베르디 이후 오페라의 긴 역사 중 최대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극적 효과에 관한 한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만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오페라들이 그가 살아있

전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중간보고서 2018 변순철

일 시 9월 8일(토)-11월 21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고은사진미술관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40대 사진가들에게 이전의 작업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해온 '중간보고서' 2018년 전시.

프랑스 작가 Hamidi VALDET 작품전

일 시 11월 1일(목)-11월 7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을 때보다도 지금 더욱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14일(수) 오후 2:00 발레가 있는 무대
 로맨틱 발레의 정수, 발레의 햄릿 '지젤'
 ● 강사/노영재(무용평론가)

16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10강
 독일 로맨틱 가도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만틱 가도(Romantische Strasse)'는 중세 시대부터 상인들과 성지 순례자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길'이란 뜻에서 부쳐진 이름으로, 전체 길이는 약 350km로 중세의 분위기가 잘 남아 있는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다.
 ● 강사/김성만(아트커뮤니케이터)

26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21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의 나-색채심리 2
 '녹색, 청색, 보라색으로 말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나는 색들이 에너지체인 사람의 심리에 작용하는 현상과 반응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녹색과 단파장 영역의 색들로 부터 일어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3주년 기념전 최영욱

일 시 10월 25일(목)-2019년 1월 8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전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지난 2005년 개관 후 걸출한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가능성 있는 국내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며 참신한 기획 전시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해운 소울아트스페이스가 개관 1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전 '최영욱展'.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삶에 대한 본질을 탐구해온 '달항아리 작가' 최영욱의 신작 20여점을 소개한다.

● 관람시간/평일 오전 10:30~오후 7:00, 토요일 오전 11:00~오후 5:00(매주 일, 월요일 휴관)

제13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가을, 행복 주제 시낭송회

일 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부산시낭송협회 제3회 정기공연 시가 흐르는 문화콘서트

일 시 1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깊어가는 가을, 을숙도에서 열리는 시가 흐르는 문화콘서트.

서정적인 우리 시와 노래, 무용, 연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시의 향기를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아는 사람' 홍장현 사진展

일 시 11월 1일(목)-11월 25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한국 대표 패션 포토그래퍼 홍장현의 첫 개인전 '아는 사람'. 뒷모습만 보아도 누구나 아는 배우, 모델, 가수 등 인기 셀럽들을 담은 사진 39점을 선보인다.

신라대학교 2018 패션소품전

일 시 11월 11일(일)-11월 18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상무주 가는 길

김홍희 사진 / 불광출판사
352p / 1만9천800원

김홍희 사진작가의 암자기행 산문집이자 흑백사진 화보집. 김홍희 작가는 1990년대 중반에 중앙일보에 ‘암자로 가는 길’을 연재하면서 전국의 암자들 사진을 찍고 글을 쓴 적이 있다. 23년 만에 다시 26곳의 암자를 찾아, 그 여정을 기록하고 화보집을 냈다. 암자는 대부분 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 바위, 돌, 물, 하늘···, 그리고 암자. 매년 같은 풍경으로 펼쳐지는 암자를 오르고 또 오르는 동안 김홍희 작가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 어느 순간 더 위로 머무를 곳 없는 무상(無上)의 땅인 ‘상무주(上無住)’에 올라섰다는 깨달음이다. 책 제목은 그 깨달음에서 나왔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정지된, 마치 돌처럼 흐르는 시간이 있다. 그 속에서 작가는 갑작스레 찾아든 암세포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우울을 털어냈다. 그 치유의 풍경과 시간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이다. 작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화질과 화소를 계산하는 초현연색 칼라시대에 흑백사진을 선보인다. 돌처럼 천천히 흐르는 암자의 시간을 형상화한 김홍희 작가의 사진은 진한 여운으로 다가온다. 소박하고 조용한 암자와 주변의 자연 풍경을 담은 흑백 사진과 어우러지는 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갤러리스트

김영애 지음 / 마로니에북스
368p / 1만8천원

미술계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책이 나왔다. ‘가스텔리 갤러리’의 레오 카스텔리, ‘가고시안 갤러리’의 래리 가고시안, ‘페이스 갤러리’의 아르네 글림차··· 이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현대 미술 시장의 성공을 주도한 업계 최고의 갤러리스트들이다. 위대한 예술가와 중요한 미술 흐름의 탄생에는 ‘갤러리스트’가 있다. 작품을 유통시키고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화상들이다. 그들은 작가를 선별하고 후원하며 작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작품을 판매하여 작가와 이익을 공유한다. 작가의 파트너인 동시에 후원자로서 미술 시장의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갤러리스트들이 정작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때로 ‘영리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사꾼이란 오명을 쓰기도 한다. 규모가 크지 않은 예술 산업의 특성상 전문 경영자로 크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갤러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갤러리스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소개한다. 프랑스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약 10여 년간 유학한 저자가 직접 세계 미술 시장을 둘러보며 현장 경험 10년을 더해 20년의 관찰과 경험을 담아냈다.



협오와 매혹 사이

이문정 지음 / 동녘
336p / 2만3천원

시체 안치소에서 실제 시체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똥을 강통에 담아 전시한 예술가, 피가 똑똑 떨어지는 쇠고기로 만든 옷.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끔찍한 것이 작품인가?” “작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든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미술 작품이 이렇다고 생각해 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투병 과정을 예술로 만든 예술가도 있다. 한나 윌케는 1987년 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1993년 사망할 때까지 점점 죽음에 다가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사진과 비디오에 담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눈은 충혈되고, 혀의 색도 바뀌는 자신의 육체를 촬영했다. 주삿바늘이 여기 저기 꽂혀 있고, 가슴배영덩이에 거즈를 붙인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은 그동안 전통적인 미술에서는 보기 힘든 여성이었다. 그 모습은 언뜻 보기엔 참혹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작품에 묘하게 끌렸다. 병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고와 체념, 두려움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누구나 맞게 될 그날일 수도 있으므로. 저자는 이문정 씨는 불편한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소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 (재)부산문화회관,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식은 지난 10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렸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람시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이외에도 지난 10월 5일,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못골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는가 하면, 지난 8월 7일과 6월 28일에는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동석), (주)엠비씨플레이비 키자니아 부



산점(대표이사 최성금)과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융성을 위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 부산시립예술단 11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11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

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11월에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부산지역 13개 고등학교에서 펼쳐진다.

찾아가는 예술단

- 11월 9일(금)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_무용단 ‘시청 로비콘서트’
- 11월 13일(화) 14:40 롯데광복점 문화홀_교향악단 ‘태교음악회’
- 11월 28일(수) 14:00 그랜드호텔 컨벤션홀_교향악단 ‘민원공무원의 날’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단

- 11월 19일(월) 10:00 연제고등학교_청소년교향악단
- 11월 23일(금) 09:20 남성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3일(금) 11:00 금명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6일(월) 09:30 부산동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6일(월) 10:00 개금고등학교_청소년교향악단
- 11월 26일(월) 11:20 이사벨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7일(화) 10:00 부경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8일(수) 09:00 용인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9일(목) 09:00 부산남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29일(목) 10:00 부산동고등학교_청소년교향악단
- 11월 29일(목) 11:00 대연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30일(금) 10:00 부산진여자고등학교_교향악단
- 11월 30일(금) 10:00 배정고등학교_청소년교향악단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성료

박인건 대표이사, 최수기 후원회장 등 80여명 참석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10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졌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로비음악회에서는 박인건 대표이사, 최수기 후원회장을 비롯해 도용복, 변원탄 부회장 등 후원회원 가족 80여명이 참석, 부산시립합창단이 준비한 합창무대 관람에 이어 리셉션을 통해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부지휘자 전진이 이끄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날 무대에서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무대로 참석한 후원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후원회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6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회원들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통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8년 10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부산문화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문화계의 마당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장문호 이사



철강회사인 천영스틸(주) 대표이사로 있는 장문호 이사는 지역문화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오랫동안 부산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문화계 인사로 유명하다. 부산문화회관 재단 설립 당시부터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며 (재)부산문화회관과 인연을 맺어온 장문호 이사는 후원회 결성 당시에도 그의 권유로 많은 후원회원들이 가입하면서 후원회 결성에 큰 디딤목이 되어 주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다. 특히 경영인으로 바쁜 와중에도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대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운영위원을 맡아 지역미술계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문호 이사는 미술뿐 아니라 건축, 음악, 문학, 디자인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지역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나문화포럼의 창단멤버로 활동하며 동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이슈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도 적극적이다. 또, 10여년 전부터 익힌 색소폰 실력도 수준급이어서 동호인 30여명과 필로스 색소폰오케스트라를 결성, 꾸준히 무대에서 오고 있다. “후원회원으로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장문호 이사. 지금이야말로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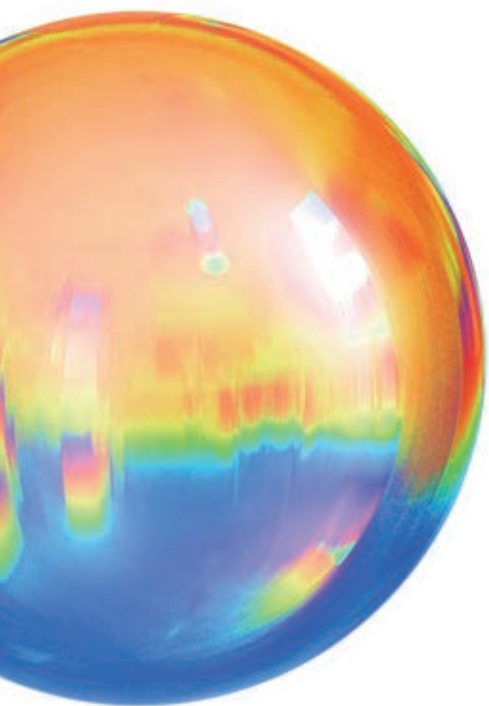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윤영기(010-7361-7273)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은 밤 콘서트 [종료]

9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와 바다새가 함께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무대.

국립무용단 '묵향' [종료]

10월 6일(토)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회당 선착순 30매)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묵향' 부산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종료]

10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예약중]

10월 31일(수), 11월 28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 지휘 : 김봉미 • 해설 : 조윤범

조재혁 x 이은결 IMAGES [종료]

11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1인 2매, R석 선착순 60매)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특별한 만남.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4. 태(態) [예약중]

12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마지막 무대.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예약중]

12월 24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선착순 100매)

러시아 클래식 발레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러시아 최고의 무용수로 구성된 러시아 클래식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018 제야음악회

12월 31일(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8년 제야음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제5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8. 9. 21(금) ~ 10. 21(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y17@bscc.or.kr)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www.bscc.or.kr

예선결과발표

2018. 10. 30(화) 진출팀 개별통보

참가자격

부산 경상 순수아마추어 직장인밴드로
구성된 팀(멤버는 2~15인 이내)

※ 단원직장이더라도 무관하나 본인명의 단독 정규음반
발매 등 프로계산으로 참가 제한(단 DJ/합성음발행은 가능)

심사위원



이수용 (NEXT)



이시영 (2BE5)



티미킴 (THERIAST)

시상내역 10팀, 총상금 1,200만원

- 대상 (상금500만원)
부산음악창작소 음원제작지원
2019부산국제록페스티벌 서브스��이지 캐스팅
- 최우수상 (상금300만원)
부산음악창작소 음원제작지원
- 우수상 (상금200만원)
- 장려상 (상금100만원)
- 인기상, 화합상, 우정상(각 2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T.051-630-5200

[경품추첨]

- 국내선 왕복항공권
- 한약 조제권
- 호텔 숙박권
- 요트 승선권
- ※ 관객대상 추첨



2018. 11. 17. (토) 15:00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孤酒忘態)

고즈그마의

태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특별출연 최진석
Jin-Seok Choi

2018.12.8 (토) 5:00pm 태[態]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Everyday emotion is contained through GGO DEUNG O's eyes.

꼬둥어의 시선으로 일상에 감성을 담다

부산팝스앙상블의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출연_ 부산팝스앙상블, 아코디언 박상민,
시릴리아 로페즈, 김주환 밴드
문의_051)630-5200

티켓 전석 2만원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팝스앙상블 송년음악회

2018년
12월 8일(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출연_ 부산팝스앙상블, 시릴리아 로페즈, 탁경주 트리오
문의_051)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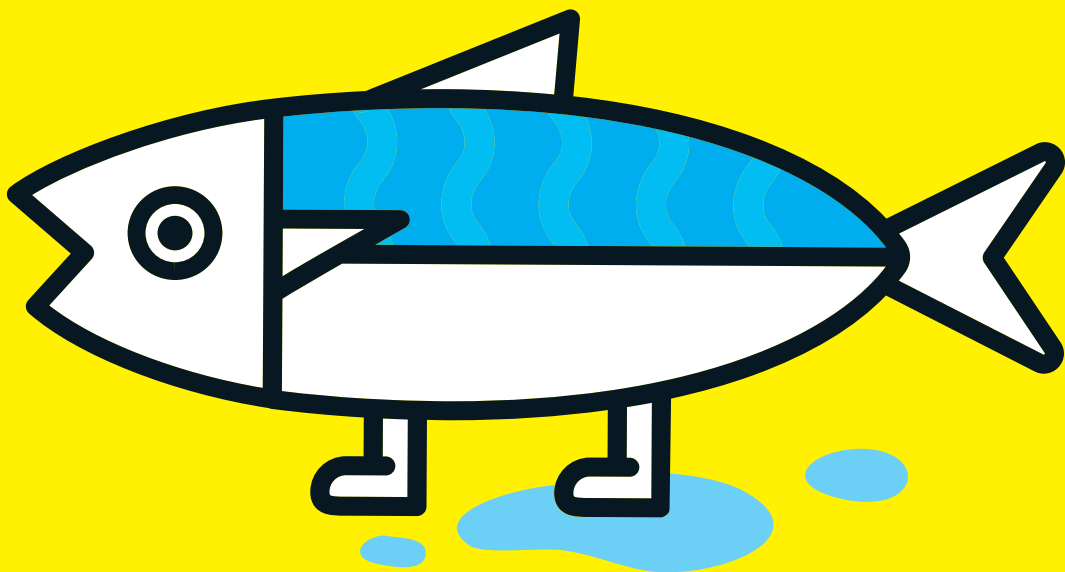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2018
YOONJONGSHIN CONCERT TOUR

2018.11.10[SAT] 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



윤종신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타입커뮤니케이션, (주)알간음중신
주관 (주)전공이엔티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